

제427회 국회  
(임시회)

##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10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리박스쿨 청문회

### 상정된 안건

- |   |   |
|---|---|
| 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 1 |
| 2.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 1 |
|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 1 |
| 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 |
| 5. 리박스쿨 청문회                                   | 9 |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안을 먼저 의결하고 이어서 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5)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4)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법안소위 심사 결과를 보고할 차례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을 충실히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있으세요?

조정훈 간사님.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오늘 청문회로 모인 의사일정이었는데 어제인가요 갑자기 민주당에서 AIDT와 관련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다시 기억을 찾기 위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지난 7월 2일이지요.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위원님께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출판사와의 문제, 현장 학교에서의 문제, 학생들 교사들과의 문제 이것저것 다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를 안 하셨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간을 드릴 테니 이 안에 정리된 무언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좀 해 달라라는 당부의 말을 하셔서 그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교과서협회 또는 발행사들과 아직 대화를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우 큰 혼란이 예상되는 그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문회에 앞서서 갑자기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2일 고민정 위원의 발언처럼 저는 이 문제는 학교현장의 그리고 정부정책의 상당한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고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조금 더 보류하고 정부와 관계자분들이 충분한 협의를 한 뒤에 통과시키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마 AIDT 교과서 법안 문제가 지난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처리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난주에 약간의 소동이 좀 있었어요. AIDT 대해서 여러 관계자들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 발언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AIDT를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 위원님들께서는 이 법안을 빨리 매듭지어야만 교육현장도 좀 안정되고 또 교과서 업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정부에서 마련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조금이라도 이 혼란을 조금 더 막기 위해서는 이 법안을 빨리 매듭짓고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를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마련하는 것이 맞다, 저는 아마 우리 여당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서지영 위원**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하십시오.

○**서지영 위원**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AIDT 교과서 문제로 1년 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과 AIDT 교과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논쟁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대부분의 논점들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드렸고 그 논점들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을 1년 내내 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 새로운 시도가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기술

적 축적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제 교육현장에 새로운 교과서 형태로 시도하려고 하는 이 노력들이 좌초된 데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AI를 활용한 교육들이 이미 시행 중인 곳도 많이 있었고 이미 사교육 시장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업체들도 AI를 이용한 여러 가지 교육자료들 교육콘텐츠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지역적 여건들로 활용할 수 없는 모든 아이들에게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새로운 학습도구로써 선생님의 가르침하에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교실혁명 새로운 교육혁명을 좌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상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현 정부가 AIDT 폐기 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실혁명은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시장들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부가 책임 있게 교육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 교육적 목표하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오늘 우리의 손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육이라는 기회의 박탈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결정을 오늘 이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서 지난 1월 17일 AIDT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우리 여야가 출석을 요구했고 참석했던 학자들도 비과학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인정한 여론조사로 AIDT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시킨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그리고 교육 종사자 모두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문정복 간사님.

○문정복 위원 AIDT 법안과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서는 사실 1년 동안 너무도 많은 논쟁이 오갔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전격적인 교과서 채택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부교재로 교육자료로 하는 법안을 저희가 통과시켰었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셨어요.

저희 국회의 권위에 대해서, 국회의 법안 의결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까지 행사한 굉장히 중차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굉장히 오랜 시간 숙고했어요. 이 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도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상정되는 법안은 국회 교육위 소속 위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난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고 그리고 대통령실과도 충분한 의논을 했고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이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이 많은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매번 거부권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아마도 본회의가 한 23일 정도에 열

리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교육부가 엑시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구전략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오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또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이렇게 할 테니 너무 염려 마시고 이 법안 잘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정성국 위원님 다음에 김준혁 위원님,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일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번 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걱정하고 우려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아서 이걸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냐, 서로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AIDT를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참 많은 예산과 많은 노력을 사실 했습니다. 했는데, 이 결과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교육현장에서 많이 받아들여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교육부를 이끌고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받아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권한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추진하는 권한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고 또 이주호 교육부장관께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한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이었고, 그런데 이게 현장에 얼마나 받아들여질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학교에서는요 이게 교육자료가 되면 사실상 그냥 안 쓴다고 보면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요 공문에서 권고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 이것은 안 하는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이 그리돼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을 때 공문에 권고가 나오면 일단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안 느끼거든요. 의무 보고 이런 게 아니면, 필수 보고가 아니면 사실상 효과가 없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아까 서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폐기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책에 우려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많은 투자를 해서 한번 시도해 보겠다고 했던 이 AI 디지털교과서 자체를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교육자료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AIDT가 학교로 들어감으로써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부담이 되고 또 실제로 효과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데에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현장에서 충분히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진행했던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거의 폐기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요.

문정복 간사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본회의 하기 전에 교육부에서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면 더 논의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라도 하셔서 교육부에서 좀 더 좋은 대안을 가져왔을 때는 좀 더 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짧은 시간이라도 좀 더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하튼 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분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노고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현장 잘 이해하시는 정성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그리고 김민전 위원님 신청하셨고요. 지금 신청이 앞으로도 총 다섯 분이 계신데요 오늘 청문회가 상임위에서 주요 다루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김대식 위원님 이후에는 더 이상 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김준혁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준혁 위원** 참 가슴 아픈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결정이 단순하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실제 학교 안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이 왜 세계적인 대세이고 세계의 미래냐?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생성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성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한대의 발전 속도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전 세계 주류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개발하고 많은 교과서 업체들이 참여한 이 AIDT, 이 교과서가 생성형이냐? 그렇지 않아요. 생성형이 아닙니다. 혹시 위원님들 그것다 시연해 보셨습니까?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시연을 해 본 사람입니다. 생성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AIDT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교과서의 약간 확장 편입니다.

교과서가 한번 만들어지면 몇 년을 쓰는 거지요? 7년을 씁니다. 이 AIDT도 역시 마찬가지로 7년을 씁니다. 올해 만들어진 이 교과서가 올해 학생들한테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 6년 뒤 7년 뒤 학생들한테 과연 지금의 이 AIDT가 먹힐 것이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인데. 6년 뒤에 아니, 내년 후년 4년 5년 뒤에 AI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학생들도 AI와 관련된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게 더 많은 뛰어난 걸 보고 있는데, 현재 개발된 이걸 5년 뒤에 그 5년 뒤에 어린이들이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교과서가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 입장, 민주당이냐 혹은 국민의힘이냐 이걸 떠나 가지고 윤석열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이걸 떠나 가지고 이 AIDT 교과서가 과연 3년 뒤 4년 뒤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과서냐?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지금 현재 이걸 교육자료로 놓고 진짜 생성형 AIDT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당 위원들이 언제 AIDT를 반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백승아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해서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마감할 텐데요.

지금 시간을 그냥 2분씩 드릴게요. 팬참으시겠지요?

그러면 김민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지금 여당 위원님들의 말씀이 한편에 있어서는 디지털 AI가 학생들의 문해력을 해친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비판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것이 생성형이 아니다라고 해서 정반대 편에서의 비판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얘기 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누가 이 사교육의 범람을 가지고 오는가라고 한다면 결국 교실을 19세기 교실로 묶어 두려고 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사교육의 범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없는 학교를 하니까, 시험 없는 교실을 하니까 결국은 학원에 가서 입학에서부터 이 입학을 위한 시험을 보고 그 안에서 무수한 시험을 보는 학원에 다들 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는 요즘은 디지털 펜이라고 해서 답을 쓰는 순간에 교사들이 그것을 무슨 답을 쓰는지 분석을 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이 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교실을 19세기 교실로 묶어 두려고 하는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하나만 하면 대학 간다’라고 하면서 대학입시 제도를 수백 개로 만들어 버린 것이 결과적으로 또 학원의 급성장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굉장히 많다, 학교를 19세기 학교로 묶어 두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사교육의 범람을 가져오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학원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서 출산율의 하락까지도 가지고 온 것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역설을 느끼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저희 민주당에서 AIDT를 반대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 AIDT는 이주호 장관님께서 현장의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준의 AIDT가 아니라 정말 AI 기능도 제대로 없는 AIDT 그 수많은 돈과 예산과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들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겠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자율권을 주겠다고 해 놓고도 계속 공문을 내려보내서 교사들이 압박감에 선택한 적도 있습니다. 학운위를 통해서 강제로 압박을 받아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증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AIDT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전 연구를 통해서 필요한 과목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했다면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니까 AIDT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다고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민주당이 AIDT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은 씌우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또 사교육이 과도하게 된 것은 과도한 경쟁체제 때문이지 19세기 교실로 묶어 두려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좀 부차적인 이야기라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고요.

앞으로 AIDT를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그래서 장애아동이라든지 또 다문화학생이라든지 필요한 학생들에게 개발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고 앞으로 현장 여론을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AIDT를 더 발전시킬 수도 있겠다, 다만 시간과 어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 현장과 소통하면서 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지금 필요한 건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AI 신분야에 도전과 개발이 필요하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명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건, 교육부도 그 자리에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까 알고 계실 텐데 이재명 정부 시대의 AI 교육에 대한 청사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고요.

그동안 교육부에 시간을 안 줬나? 교육부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선 이후부터 줄곧 계속해서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가 아무런 대안도 안 가지고 오고 뭘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통해서 혼란이 더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미룰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난번 조정훈 간사께서도 왜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바로 그다음 전체회의에 안 올리냐, 왜 선택적으로 법안을 상정시키느냐라는 말씀도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간사님께 요청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보류하자고 했던 것도 저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교육부와 출판사 혹은 관계자들이 준비가 다 된 다음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을 하면서 보류를 요청드렸었는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도 왜 빨리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닦달을 하는 상황이라면 현장의 혼란이 상당한가 보다, 그러니까 빨리 통과시킵시다 해서 이렇게 처리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빨리 그 대안들을 준비해 오셔서 청사진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마지막으로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참 저는 이게 굉장히 참담합니다. 사실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왔던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참담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누차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백년지대계 하는 교육정책과 또 역사문제, 왜곡 이런 부분은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AIDT 이것 할 때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도심 지역의 정책보다도 소외계층 또 인구소멸지역 또 도서·산간 이런 부분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아까 앞에서 여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백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론의 그걸 한번 들어 봐야 된다.

그래서 졸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것보다도 교육부의 대안도 충분하게 듣고 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 이런 부분도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긴 시간 동안 AIDT 관련된 여야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고요.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입장은 좁히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됐는데 AIDT 토론 중에 우리가 확인한 것, 우리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현장에 AI 교육이 절실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AI 산업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은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도 우리가 교육과정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AI 교육을 실현시킬까 이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법안 처리하시고 나서 우리 학생들 교과과정에 진짜로 AI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4항까지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조문별로 충실히 심사했기 때문에 위원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3항까지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4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정훈 위원 반대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반대해서 표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표결이요?

○조정훈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시지요.

여야 간사님들, 표결 동의하세요?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건 우리가 기록에 남기겠다라는 조정훈 간사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재석 15인 중 찬성 9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국회법 테두리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여야 위원님들 간에 입장 차이가 있고 좀 섭섭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앞서 의결한 법률안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66조 및 79조의2에 따라 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사항의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 의결과 관련해 교육부장관의 인사를 듣겠습니다, 장관님이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법률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의 대혼란이 우려됩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는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필수 과제이며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진일보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2025년에 맞추어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잊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정책 수단과 시기를 모두 놓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AIDT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관님 마지막 발언에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는데요. 이것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이미 여야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정말 아주 긴 세월 동안 있었고요. 이것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습니까?

압도적인 제1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을 써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사실 마지막까지 유감을 이렇게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은 정말, 이주호 장관님의 태도에 저는 정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5. 리박스쿨 청문회

(10시29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5항 리박스쿨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극우 성향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의 불법 댓글 조작, 위장 단체 침투 의혹, 교육부 및 유관 기관의 연루 의혹, 이주호 장관의 책임 규명 등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청문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중 네 분이 참석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입니다.

이주호 장관님은 국민 여러분이 다 알아보시니까, 다음부터 제가 지명하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수정 전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관입니다.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입니다.

(인사)

손효숙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호인을 대동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제9조는 ‘국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업 등으로 바쁜 중에도 청문회에 출석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증인의 성명·직위 등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증인의 본인 여부는 교육위 행정실에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증인 중 김은총 한국들봄교육연합회 대표에 대해서는 간사 간  
논의에 따라 출석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주성 증인은 개인 일정에 따른 해외 방문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연취  
현 증인은 청문회 당일에 재판 일정이 있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리박스쿨에 대한 많은 의혹과 문제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확인하고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중요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성·연취현 증인이 개  
인 여행과 재판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거쳐 그 책임을 염중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주호 증인이 발언대로 나와 대표로 선서하고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주호 증인 나와서 선서해 주십시오.

○**증인 이주호**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리박스쿨 청문회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  
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7월 10일

증인 이주호

증인 이수정

증인 장신호

증인 손효숙

○**위원장 김영호** 증인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  
분, 추가질의 3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김대식 위원**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먼저 이른바 리박스쿨이라 불리는 단체의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본 위원도 깊은 유감

을 표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사안은 아직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불과 지난 7월 2일이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혐의 입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안 전체가 어떻게 귀결될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형사책임이 쟁점인 사안으로 행정안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도 단순히 단체 명칭에 스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위원회가 청문회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 본 위원으로서 그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미 네이버에서도 고소가 이뤄져 해당 단체에 대한 민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이 명백히 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인 사안을 두고 교육위원회에서 별도의 검증을 벌이는 것은 국가 교육을 검증해야 할 청문회 본연의 목적과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넷째,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앙 선관위는 지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사 위반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며 민주당 측 의원께서 요청해 받은 공식 답변에 따르면 인터넷에 댓글을 다수 게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치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 리박스쿨 사안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으로 심지어 이를 질의한 쪽에서 조차 자승자박 격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후보자의 자질과 비전을 검증해야 될 중대한 시기이며 교육격차, 학령인구 감소, 대학 구조조정, 교원정책 등 산적한 현안을 놓고 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시간을 가지고 수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교육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벗어나는 일을 하는 것은 누구도 또 누구에게도 공감받기 어렵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유념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신중한 논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이번 사건을 다양한 각도로 지켜보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왜 이 문제를 청문회를 하냐 하면 리박스쿨의 스쿨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교육부장관의 정책자문관과 교육정책자문위원이 주요 인사고요, 여기의 핵심 인물이고. 그다음에 늘봄학교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나 모른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고, 다만 정보통신망법 등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은 또 그 상임위 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할 사건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굉장히 핵심 인사들이 교육 관계자들이고 또 교육 부처도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됐다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서 밝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시간은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요. 증인들도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이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하고자 할 경우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변호인은 발언권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이수정 전 정책자문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는데 요쪽으로 오시면……

○**위원장 김영호** 우측에서 질문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증인은 왼쪽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래야 아마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국 위원** 자문관님 오늘 수고 많으시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좀 많았어요. 그렇지요?

○**증인 이수정** 예.

○**정성국 위원** 많았는데 한동안 무대응하시다가 최근에 입장문을 내시면서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랬는데 왜 입장문을 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수정** 추가적인 쟁점화가 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잘 안 들리는데 조금 크게……

○**증인 이수정** 예,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쟁점화가 되는 것을 우려해서 무대응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그러한 의혹들이 마치 사실인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간단히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부총리 자문관으로 결정됐는지, 그러면 이주호 부총리와 원래 좀 알던 사이셨어요?

○**증인 이수정** 부총리님과 이전에는 알던 관계가 아닙니다. 전임 자문관이 저에게 자문관으로 추천한다고 해서 제가 승낙을 하고 교육부로 오게 되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전임 자문관이 본인을 추천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증인 이수정** 알던 관계는 아닙니다.

○**정성국 위원** 이주호 부총리하고는 아는 관계가 아니다?

○**증인 이수정** 예.

○**정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데요. 이수정 자문관께서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신 경위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자문위원으로 추천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이수정** 교육부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저도 학계의 교수님들께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의 여론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교육 관계자들께서 여러 분들이 손효숙 대표를 추천했고 제가 그 추천 의견을 그대로 특별한 의견 없이 해당 부서에 전달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추천을 받을 때 사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검증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추천할 때 그분을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일단은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손 대표 단체에서 댓글 활동이나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수정 자문관께서 추천하신 분이잖아요. 추천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좀 편향된 교육에 대한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알게 되셨는데 이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증인 이수정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알지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시민단체 활동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알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자문위원으로 추천을 한 것 그 외에는 제가 그 뒤에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었고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 자문관께서는 지금 그 댓글 활동이라든지 우편향 교육 의혹에 관련이 돼 있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수정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제가 그런 활동과 관련된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늘봄연합회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증인 이수정 예.

○정성국 위원 늘봄연합회하고 교육부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압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도 있으신데 이건 어떤 거지요?

○증인 이수정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MOU를 맺으라고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행복교육봉사단이라는 단체의 단장께서 해당 부서에 MOU를 맺고 싶다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답이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달라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확인해 달라고 했고요. 해당 부서에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주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이 리박스쿨 의혹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보더라도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서 지적을 받을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어떤 경위를 떠나서라도 이번 논란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사람을 추천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증인 이수정 이런 의혹들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리박스쿨과 관련돼서 저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성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부총리님, 부총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수정 정책자문관하고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으시다. 그렇지요?

○**증인 이주호** 임명되기 전에는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습니다.

○**정성국 위원** 임명된 이후에 그냥 아시게 된 거니까. 그렇지요?

○**증인 이주호**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부총리님이 워낙 인사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을 철저하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이틀이 정책자문관 자문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인사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이주호** 정책자문위원회 구성도 120명이 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작년에 확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 주시겠어요?

○**증인 이주호** 확대하는 과정에서 손효숙 대표가 포함돼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박스콜 문제 제기가 된 뉴스를 보고 저희 교육부에서도 향후에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국 위원** 그러면 이제 교육부장관이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앞으로 이런 자문관 구성이라든지 자문위원회 구성할 때 있어서의 검증이나 체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하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증인 이주호** 아무래도 다음 정부의 과제가 될 텐데요. 저희가 정책자문위원회는 또 한편으로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려가 제기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우리 사회적으로 합의된 중요한 헌법 가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절차적인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성국 위원**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주호** 예.

.....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손효숙 대표님 이쪽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총장님께 마이크를 좀 갖다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앞에서 공교롭게도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걸 꼭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주호 장관님, 저는 역사가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 유감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임의로 선택하게 했을 때 유일하게 100%를 도입한 대구에서 이 교과서 활용도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참담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을 직시하셔야지 유감을 표한다고 하시니 저도 진짜 유감스럽고요.

손효숙 중인, 자문위원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신 일이 있어요?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하신 일 있어요? 빠르게 답해 주세요. 없지요?

○증인 손효숙 교육부의 자문위원으로 제가……

○진선미 위원 활동한 건 없지요, 구체적으로?

○증인 손효숙 예, 특별히 한 일은 없는 것 같고요.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요.

○증인 손효숙 지난 2월 달에 자문위원회 세미나, 워크숍 그때……

○진선미 위원 참석하신 것 그게 다지요?

○증인 손효숙 예, 참석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하나가 더 있어요. 기억을 살려 드릴게요.

2월 9일 일요일 밤 10시 33분에 문자 보내신 것 있지요?

○증인 손효숙 예.

○진선미 위원 이게 모르는 번호로 모든 민주당…… 모르겠습니다. 저쪽 당 위원들 지금은 야당이 되셨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까지도 문자를 보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찬성을 했으니까. 그런데 모르는 번호로 우리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한테 일제히 그것도 일요일 밤 10시 반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학부모 유권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 정치적 논리에 따라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학부모를 화나게 하는 법안이니 꼭 부결시켜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일제히 왔습니다. 본인이 보냈지요?

○증인 손효숙 예, 보낸 것 같습니다.

○진선미 위원 본인이 학부모였습니까, 그 당시? 아니지요?

○증인 손효숙 저는 학부모……

○진선미 위원 학부모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이로 치면. AIDT 교과서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이 당시에 2월 9일이면, 오늘 자료에 보면 교육부에서 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은 6월 1일입니다.

교육부장관님, 맞지요?

○증인 이주호 예.

○진선미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증인은 명실상부한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이것을 보낸 거예요, 본인이 학부모도 아니면서 유권자로서. 2월 9일이면 본인이 자문위원이란 말입니다. 유일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이 민주당 위원들한테 AIDT 교과서 반대하지 말라고 학부모로서 화난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맞지요?

○증인 손효숙 예.

○진선미 위원 장관님, 이런 일 하라고 자문위원 위촉하셨습니까?

○증인 이주호 아니, 저희가 자문위원들 개개의 활동을 전혀 모니터할 수가 없으니까요.

○진선미 위원 이런 일 하게 하시려고, 원래 다양한 활동들을 하신 건데 다양한 단체 이름으로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역할들을 계속하셨지 않습니까? 동영상 다 나와요. 동영상에 보면 본인께서 광화문에 태극기집회를 가셔 가지고 ‘계몽됐다. 이승만 박

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제 알았다' 이런 얘기들을 동영상에서 하세요. 제가 본 건 2017년에도 있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기반해서 저는 자문위원을 시켰다고 보고 그것처럼 지금 이주호 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AIDT 이 교과서를 하도록 압력 문자를 우리한테 보내셨습니다, 유일하게 자문위원으로서.

○**증인 손효숙** 자문위원으로서 보낸 것이 아니고요.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자문위원으로 보내셨어야지요. 정확한 명칭이 있었고 역할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내셨으면 차라리 우리가 답변이라도 하지요. 모르는 번호로 와 가지고 학부모 유권자라고 거짓말을 하신 거잖아요, 학부모가 아니신데. 지금 손주도 초등학교 1·2학년 아니잖아요.

○**증인 손효숙** 손주……

○**진선미 위원** 1·2학년 아니잖아요, AIDT 대상자.

○**증인 손효숙** 아니요, 초등학생들은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렇고요.

총장님, 답변해 주세요.

○**증인 장신호** 예, 답변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번에 조치할 때 증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서 수사의뢰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예.

○**진선미 위원** 어떻게 했냐면 '사단법인 한국놀봄교육연합회가 손효숙의 딸 김은총 1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다수의 강사들과 전국 각지에서 방과 후 교육의 전문성을 가진 강사들로 이루어졌고 자신이 사단법인 한국놀봄교육연합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는 거잖아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고 1인 개인사업자였던 거잖아요.

○**증인 장신호** 예.

○**진선미 위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맞지요? 맞지요? 이게 사실이지요? 아닙니까?

○**증인 손효숙**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진선미 위원** 증인, 증인이 늘 집회에서 10분 이상 발표하실 때나 인터뷰를 하실 때 보면 정말 자신만만하게 아주 씩씩한 목소리로 답변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한 이 부끄러운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가 확인된 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진술하셨다고 서울교대 총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증인 손효숙** 지난 5월 30일 이후에 제가 이렇게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선미 위원**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지금 저의 질의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증인 손효숙** 그래서 제가 지금 심신미약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마녀사냥이라니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시지 마세요. 냉정하게 준비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울교대 총장님 지금 마이크 잡고 계시지요?

○**증인 장신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MOU를 맺었어요. 그렇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학교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한가요? 어떻게 MOU를 맺을 수가 있어요? 저는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 못 하거든요.

○**증인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입니다.

제가 오늘 참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과 위원님들께서 서울교대의……

○**위원장 김영호**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증인 장신호** 여러 가지 의혹과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참석했고요. 질문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MOU를 맺게 된 과정, 그리고 지금 고소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예, 고소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발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예.

○**위원장 김영호** 고발한 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줘 보세요.

○**증인 장신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부분을 사기당했다는 건지 국민들께 알기 쉽게 빠른 속도로 말씀 주세요. 이따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테니까요 그거 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주세요, 이따 또 질의 시간 있으니까요.

○**증인 장신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을, 그런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이 있는지를 5월 31일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다음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교대는 늘봄사업을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나오는 공모 절차에 따라서 또 거기에 사업요청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사업요청서에 따라서 충실히 그 절차와 선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MOU는 업체와의 MOU라기보다는, 한국창의재단의 공모사업제안서를 보시면 거기에 좋은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의 강사풀을 확보한 그런 업체와 협력을 해서 서울교대가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교대가 업체들의 협력을 받아서 초등학교에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들을 제공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MOU를 좋은 프로그램과 강사풀 때문에 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보여 드리는 부분이 서울교대가 고소한 그 이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만하세요. 지금 말씀은 잘하셨다는 건데, 서울교대 전혀 문제

없다는 거니까 앉아 계세요. 알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서울교대가……

○위원장 김영호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서울교대는 MOU 맺은 것이 전혀 문제가 없고 잘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이주호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성국 위원님에 이어서 자문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수정 자문관께서는 후반부에 저기 서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는 법령상으로 몇 명의 장관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습니까?

○증인 이주호 법령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손효숙 대표님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주호 지금 현재 한 120명이 좀 넘는……

○강경숙 위원 그것은 정책자문위원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보좌관, 몇 명을 둘 수 있지요?

○증인 이주호 정책보좌관과 자문관이 다릅니다. 보좌관은 아마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2명 맞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은 자문관이라고 하는 좀 독특하게 이상한 직위를 통해서 정책보좌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의 인사를 시행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이수정 자문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문관이 총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확하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교육부에 들어온 것입니까?

○증인 이주호 정책자문관은 인사 담당하고 상의해서 보좌관과 함께 장관을 정책적으로 보좌할 분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저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자문관을 임명하는 것, 여기 한번 화면에 띄워 주셔도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공무원법 32조의4에 보면 파견근무라고 하는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민간 전문가를 파견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증인 이주호 맞습니다.

○강경숙 위원 그런데 이 법령을 보면 국가기관 외의 단체나 기관이지요. 단국대학에 계셨는데 이수정 자문관 같은 임직원을 파견받아서 근무할 때는 어떤 것이 단서로 되어 있는 거냐면 ‘파견할 때는 국가 사업의 공동 수행 그리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수정 자문관은 국가의 어떤 공동 수행을 위해서 파견 요청을 한 것인지 혹은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 이주호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수행할 때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중등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AIDT라든가 교원정책이라든가 함께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책들이 쉽지 않은 과제들이어서 이런 것들을 교육학에 기반을 둔 전문가가 파견돼서 장관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문성이나 특수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리박스쿨과 같은 극우단체와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사게 하는 측면이 아주 많습니다.

○증인 이주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경숙 위원 제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수정 자문관의 임명은 다른 2명의 자문관의 파견과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 자문관 3명을 두셨는데 다른 두 자문관은 분명히 장관님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자문관은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로로 아까 추천받았느냐고 정성국 위원님이 여쭤보니까……

○증인 이주호 여기에 지금 나온……

○강경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증인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전임 자문관이 추천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면 저희 의원실에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리박스쿨 청문회의 핵심 중 1명인 이수정 자문관의 업무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의 위반 소지가 아주 다분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법에서 정한 파견사유에 따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을 자료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화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수정 자문관의 업무추진비 목록입니다. 목록을 보시면 본인의 파견사유나 전문성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교육부 정책 전 분야에 대한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예요. 왜냐하면 이건 자문관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다음 업무추진비 목록을 보시면 이것은 고등교육 관련 내용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여기 패널을 보시면 민간 전문가가 파견될 때 주요 직무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등교육 관련 정책 자문이나 검토나 연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등교육 관련된 협의의 내용을 많이 하신 것입니까? 본인은 지금 사립대학의 교수인데 이렇게 되면 대학재정 지원사업이라든지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특수대학원 설치 관련, 인문주간 관련 인문행사, 마이스터대학교 지원사업 관련된 것, 신산업 분야, 굉장히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광범위한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들이 너무 차고 넘칩니다.

장관님, 이렇게 본인께서 임명한 자문관이 이런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증인 이주호 교육학계에……

○**강경숙 위원** ‘예, 아니요’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인 이주호** 특히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 초중등과 연계가 됩니다. 또 산학협력 같은 경우에도……

○**강경숙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세요.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증인 이주호** 저는 이수정 자문관이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충실히 한 것입니까? 그러면 출장기록도 한번 보시지요.

출장기록도 보시면 대부분 같은 사유로 지속적으로 서울 출장을 간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활동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교육부 정책에 개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까처럼 본인이 분명히 사립대학교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 관련된 업무를 한 것이 분명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출장도 이렇게 똑같은 사유로 서울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것 출장비를 받고 업무추진비를 다 받은 것입니다.

이수정 증인, 제가 지금부터 분명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쭤보는 말씀은 아시겠지만 위증됐을 때는 고발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수정 자문관께서 교육부에서 간부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텔레그램에 참여하셨습니까? ‘예, 아니요’로.

○**증인 이수정** 예, 참여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참여하셨지요?

○**증인 이수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참여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시지요? ‘예, 아니요’로.

○**증인 이수정** 예, 제 정보를 올려 드리거나……

○**강경숙 위원** 하셨지요?

○**증인 이수정**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좋습니다.

주간으로 열리는 간부회의에 참석한 적 있으시지요?

○**증인 이수정** 예,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장관님의 정책 협의하는 데서 배석한 적 있으시지요?

○**증인 이수정** 예.

○**강경숙 위원** 그러면 교육부 간부들에게 정책 관련 지시나 민원을 전달했습니까?

○**증인 이수정**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강경숙 위원** 어쨌건 민원을 전달하거나 정책 관련 내용을 같이 협의하거나 내용을 논의한 것이 있으신가요?

○**증인 이수정** 예, 회의의 토론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강경숙 위원**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것이 자문관으로의 역할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수정** 예,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경숙 위원** 이게 맞습니까? 자문관 제도는요 평소 교육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주호 장관 당시에 자문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질의 전에 손효숙 증인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이수정 교수님은 자리로 돌아가서 앉으시고요.

○정을호 위원 오늘 리박스쿨 청문회입니다. 오늘 손효숙 증인을 통해 극우정치 카르텔이 놀봄학교 매개로 공교육을 악용하여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교육을 주입하고 극우이념 세력을 조직적으로 양성해 온 놀라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 있는 극우정치 카르텔 중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안에도 리박스쿨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법인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차미연이라 부르는데요. 차미연인데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차미연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국회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하며 계획적으로 국회와 정부의 제도 안까지 침투해 왔습니다. 리박스쿨과 차미연의 중심에는 손효숙 증인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 차미연에서 맡은 직책은 무엇이고 어떤 활동을 하셨지요? 모르시나요, 차미연은?

○증인 손효숙 차미연……

○정을호 위원 몰라요?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증인 손효숙 예,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정을호 위원 간단하게, 어떤 역할을 하셨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증인 손효숙 저는 거기에 특별하게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미연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나오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도 지금 부정하시는 건가요?

○증인 손효숙 자문위원이었던 건……

○정을호 위원 한번 영상 보시지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차미연 정기총회에서 대표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증인 손효숙 저는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정을호 위원 모르시고 가신 거예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직책만 자문위원으로 하고? 그래도 말씀은 자문위원이라고 하셨는데.

○증인 손효숙 제가요?

○정을호 위원 예, 영상자료가 있잖아요.

○증인 손효숙 저는 몰랐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리박스쿨 교재가 차미연에서 독후감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리박스쿨 교재가 차미연 독후감 공모전 지정 도서로 돼 있는데 영상 한번 볼게요.

(영상자료 상영)

지금 이 책이 차미연에서 독후감 공모전으로 했던 책인데요. ‘할아버지가 들려 주는 6·25전쟁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지금 화면도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직접 쓴 독후감인데 허위 투성이 역사왜곡인데요. 모르시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 책 자체는 저희가 자유우파 진영에서 할아버지가 들려 주는 6·25전쟁 이야기 많이들 서로 추천해서……

○**정을호 위원** 증인, 그러면 역사왜곡 문제 이 부분을 혹시, 출강한 강사 있지 않습니까? 양성 교재로 사용하셨지요, 늘봄학교 강사로 할 때 강사 교재로?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아니에요?

○**증인 손효숙** 예,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구비를 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냥 구비만 해 놨고?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그런데 보시면 증인께서 차미연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하지 않으셨지만 차미연의 이 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정을호 위원**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 이 책이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리박스쿨과 차미연 역사왜곡 도서를 윤석열 정부 국방부가 진중문고 도서로 지정하여 9948권, 혈세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배포를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부분……

○**증인 손효숙**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정을호 위원** 아, 모르시고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차미연이라는 곳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차미연에서…… 증인이 차미연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국방부에서 진중문고 타이틀을 내세워서 포장을 해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상장을 줘요, 우리 학생들에게.

○**증인 손효숙** 제가요? 차미연 독후감 대회? 모르는 일입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차미연이라는 부분은 단순한 공모전이 아니에요. 증인께서 참석하신 차미연이라는 곳의 자문위원이 그냥 보통 자문위원이 아니에요. 역사왜곡 단체고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침투해 가지고 하셨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모르쇠로만 일관하면 안 되지시오.

○**증인 손효숙**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회의나 또는 세미나했을 때 한 번씩 회원으로서 초청은 받았지만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 줄은 몰랐습니다.

○**정을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시지요, 계속.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윤석열 탄핵 영상인데요 이게 차미연에서 했던 활동이에요.

(영상자료 상영)

증인, 이것 공익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교육 맞습니까, 차미연이라는 곳이?

○증인 손효숙 아니, 저는 차미연이 어떤 지위와 어떤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정을호 위원 몰랐는데 참석을 하셨겠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냥 거기가 사단법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아, 알고는 계시는 거예요?

○증인 손효숙 예,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건 모르지요, 제가.

○정을호 위원 아, 국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신 거예요?

○증인 손효숙 예, 몰랐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차미연과 리박스쿨이 어떻게 한몸인지 한번 볼게요.

영상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손효숙 증인은 리박스쿨 대표이자 차미연의 자문위원이시고요.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은 리박스쿨 학교장이자 차미연 발기인 겸 공동대표입니다. 정택환은 리박스쿨 공동강사이자 늘봄학교 개입을 시도했고 차미연 발기인 겸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름만 다를 뿐 거의 똑같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전혀 몰랐다고 지금 발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왜곡된 역사관, 극우이념을 주입하는 게 똑같은데?

○증인 손효숙 그렇다고 제가 차미연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정을호 위원 아니, 자기가 소속된 걸 알아야.....

○증인 손효숙 아니,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 회원으로서.....

○정을호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2025년 차미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회사무처로 제출된 2025년 차미연 사업계획서입니다. 자손군을 양성했던 리박스쿨과 함께 공동으로 이념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분명히 하셨어요. 보시면 리박스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도 모르시는가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누가, 밑에서 하셨어요? 누가 하셨는데요, 그러면?

○증인 손효숙 아니, 저는 거기에 아무런, 임원도 아니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여기에 보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차미연과 리박스쿨이 함께하고 있어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저는 이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을호 위원 자료가 다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원금 받으신 것도 있어요, 국회에서. 차미연에서 받으셔 가지고 그것을 리박스쿨의 지원금으로 한 것도 있어요.

○**증인 손효숙** 저희한테 청년들 쇼츠 제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로 지원해 주고 한 것은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예, 이따 보시지요.

○**증인 손효숙** 왜냐하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 리박스쿨과 뜻을 같이한다고 해서……

○**정을호 위원** 뭐 많이 아시네요. 많이 아시네요.

○**증인 손효숙** 예,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 내부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서를 냈는지 이런 건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정을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리박스쿨과 똑같은 단체가 국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기 때문에 국회 규정에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실태 감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분명한데 활동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의장님께 해당 법인의 지정취소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방부에도 진중문고에 이런 악의적인, 왜곡된 역사교과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서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예,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저도 처음 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희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요. 그런 의혹이 확인되면 당연히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효숙 대표님이 탄핵 반대 그런 현장에도 종종 나가셨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현장 거기에 나가셨어요?

○**증인 손효숙** 저희가 토요일 광화문집회 이런 곳에는 가끔 시간 날 때 나가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군요.

○**증인 손효숙** 저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난 한 달 넘게 지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탄핵을 반대하셨으니까 일관된 논리로 보면 지금 재구속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세요? 적법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부당하다는 겁니까?

○**증인 손효숙**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여기서 꼭 발표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런 현장을 종종 나가시고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답변하기 쉽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손효숙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선미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위원장님, 증인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 그러면 동영상도 공개할 텐데 너무 말짱하게 격렬하게 집회에서 발언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서 중차대한 이 시점에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리고 답변도 안 하고 저희 지금 질의시간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위원장님께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녀사냥 당하는 느낌이라고 그러셨는데 해명하실 것 있으면 국민께 해명하고 진실 여부에, 지금까지 어떤 철학을 갖고 행동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도 국민께 당당히 말씀 주세요. 초등학생들에게 이념을 가르치시면서 왜 지금 국회와 국민들 앞에서는 그 이념과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당당하게 이런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그러면 해명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심신미약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제 가슴이 쿵쾅 거립니다.

손효숙 대표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까지 정신을 피폐하게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따져 물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손효숙 대표의 인터뷰예요. 본인이 했던 말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올가미에 간혀 있다’, 지금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본인은 역사를 왜곡한 바가 없다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맞습니다. 저는 왜곡한바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둘째, 극우 세력으로 몰아간 것은 마녀사냥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했던 행동들이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

○고민정 위원 역사적 정통성을 얘기했을 뿐이다?

○증인 손효숙 예, 그것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민정 위원 알겠습니다. 역사적 정통성을 얘기했을 뿐이다라는 것 제가 똑똑하게 기억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이것 아시지요? 구띠플랜 주자구 100프로젝트 이게 뭐니까?

○증인 손효숙 2020년……

○고민정 위원 어떤 뜻입니까, 이게?

- 증인 손효숙** 구국의 떠를 잇는 플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 고민정 위원** 본인이 만드셔서 알기는 하시군요.
- 증인 손효숙** 예.
- 고민정 위원**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구국의 떠잇기, 주민 밀착 자립형 구국 활동가 100명 육성 이런 프로젝트를 리박스쿨이 진행을 하셨지요?
- 증인 손효숙** 진행한 적 없습니다. 계획입니다.
- 고민정 위원** 아,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 했다?
- 증인 손효숙** 예.
- 고민정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계획은?
- 증인 손효숙** 2020년 그때 정도로 기억합니다.
- 고민정 위원** 심지어 강사가 EBS 이사님이시네요?
- 증인 손효숙** EBS 이사님?
- 고민정 위원** 예, 조형곤. 맞지요?
- 증인 손효숙** 아니요, 강사는……
- 고민정 위원** 모릅니까?
- 증인 손효숙** 강사는 많이 계셨지요. 아까 말씀하신 김주성 그런 분도 계셨고……
-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해당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됐는지 제가 보여 드릴게요.

다음 장 보여 주시지요.

결국 그날의 강연에서 결론은 이겁니다. 리빌딩,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을 하셨는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5·18 유공자는 투명화시킨다, DJ·노무현재단은 자유국민재단 자유재단 이런 것들로 바꾸고, 세월호 우상화는 붕괴시킨다, 여가부는 노인가족부로 바꾸고, 언론노조는 자유언론인협회로, 기업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좌익 적폐 세력이니 전향시키거나 제거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증인 손효숙** 저는 처음 들어 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 고민정 위원** 처음 들어 본다?
- 증인 손효숙** 예, 제가 작성한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요.
- 고민정 위원** 이게 리박스쿨 그 하나로빌딩 802호에서 벌어졌던 일이네요.
- 증인 손효숙** 거기는……
- 고민정 위원** 구띠플랜이 뭐인지는 아시는데 제가 보여 드린 이 문건은 처음 본다?
- 증인 손효숙** 예, 왜냐하면 저희 리박스쿨 사무실에는……
- 고민정 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만들었을까요?
- 증인 손효숙** 공유 사무실로서 여러 단체가 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건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고민정 위원** 우리가 노상원 수첩 얘기 많이 하지요? 거기에 야당 위원들을 제거 대상으로 올려놓은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리박스쿨에서는 2020년에도 전향시키거나 그게 안 되면 제거한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겁니다, 손효숙 씨가 있었던 그 단체에서.

○**증인 손효숙**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제거하겠습니까.

○**고민정 위원** 다음 것 보여 드릴게요. 다음 문서 보여 주시지요.

‘역사를 왜곡하는 올가미에 갇혀 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4·19 민주이념도 계승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그대로 다 교육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임시정부의 법통도 인정하고 민주화 민주개념 이런 것들도 계승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증인 손효숙** 예, 동의합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다음에 개헌이 된다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그건 제가.....

○**고민정 위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려야 됩니까?

○**고민정 위원** 예,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요. 여기 놀러 온 것 아니에요.

5·18 정신 수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안 합니까?

○**증인 손효숙** 저는 그것을 수록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할.....

○**고민정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까?

○**증인 손효숙** 예,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지요.

○**고민정 위원** 명예를 복권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물었습니다.

○**증인 손효숙** 예, 그건..... 제 생각을 그렇게 물어야 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여기 왜 나왔습니까! 답변하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 손효숙** 저는 이미 오래전 2020년에 있었던.....

○**고민정 위원** 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동의하나 안 하냐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증인 손효숙** 제가 답변을 해야 됩니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위원님.

○**고민정 위원** 위원장님, 잠깐 멈춰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잠시 멈춰 주세요.

○**고민정 위원** 답변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계속 말씀하셔서. 그러면 여기 우리 왜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자료와 몸담고 있는 리박스콜 속에서 나온 자료를 지금 근거로 제시하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손효숙 대

표가 몸담고 있는 단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손효숙 대표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증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진행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손효숙 씨가 1차, 2차, 3차도 아마 참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당 TF 자료에 보면 손효숙이라는 이름 석 자가 벼젓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했냐,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가서 전두환 명예회복하지 맙시다라는 걸 주장하려고 여기 들어가셨나요?

○**증인 손효숙**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 개인들, 국민 주권자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고민정 위원** 그래서 본인은 전두환 명예회복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증인 손효숙** 지금은 어렵지요.

○**고민정 위원** 동의하지 않는다?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학살자로 인정합니까?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학살자라고 인정합니까? 학살자로 인정하느냐고요.

○**김민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는 끝나고 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민정 위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국민들을 무고하게 희생시켰던 그 당사자임을 인정하느냐고요.

○**증인 손효숙** 제가 역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아니, 손효숙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 내부 문건 회의에 전두환 명예회복 TF를 만드셨잖아요.

○**증인 손효숙** 그 TF 만든 것도 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별써 언제적 일이고 저희들이 무슨 회의를 하든지 그것은 개인 시민들이……

○**고민정 위원** 1차 회의에 5명밖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2차 회의는 6명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의 회의도 아닌데 이것을 기억 못 한다?

○**진선미 위원** 아니,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대표시잖아요.

○**증인 손효숙**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대표가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역사지킴이 대표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전두환 학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간단한 질문을 답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미 판단이 섰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자신도 없으면서 무슨 아이들의 사상 교육을 시키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김민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참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청문회를 하는 목적이 늘봄교육에 대해서, 소위 위원장님의 말씀은 극우 사상의 침투를 노렸다 이

런 말씀을 하시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댓글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것은 청문회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상 검증을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하게 됩니다. 누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것을 일일이, 공직자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위헌적인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해석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일개인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것에 대해서 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청문회 자리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고민정 위원 저도 처음에는 늘봄, 즉 교육에만 관련되어 있는 리박스쿨에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은 교육위안에서만 청문회 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두환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해당 리박스쿨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내부 문건에 보면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TF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참석자로 손효숙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는 것이지 저분의 사상을 검증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국민에게 개인의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오늘 손효숙 대표는 늘봄학교에 극우사상을 침투시키려고 했다는 의혹을 갖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한 질문, ‘살인마 전두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는데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저런 사상을 갖고 있는 손효숙 대표의 리박스쿨이 학교에 다 침투해서 아이들 사상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불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만약에 손 대표가 이 자리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고 나는 그런 교육 안 시켰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안심하겠지요.

그런데 저런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아직도 극우적인 성향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우리 학교에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이제 의사진행발언 그만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1분만.

○위원장 김영호 1분만 하시지요.

○진선미 위원 아니, 개인 사상 검증이라니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애국시민 중 시민활동가 선발, NGO 20개 창립’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게 몇몇 개의 단체들이 협력단체로 지속적으로 모여서 뭔가를 계속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역사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물어보는 게 너무 당연한 겁

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우리 여야 위원님들끼리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김민전 위원님은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적인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자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장신호 총장님, 앞으로 이쪽으로 좀 나와 계실래요. 총장님, 제가 보이게끔 오른쪽으로 부탁합니다.

○**증인 장신호** 예, 위원님.

○**김대식 위원** 총장님, 총장 취임 언제 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23년 12월 26일에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만 2년 지났네요. 그렇지요?

○**증인 장신호** 예.

○**김대식 위원** 총장님은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야기를 언제 아셨어요?

○**증인 장신호** 늘봄연합회는 제가 대학 총장이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대학 총장이 모든 세부 사업을 다 관리하거나 진행하는 중간에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총장으로서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늘봄연합회 보고를 받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과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MOU 체결할 때는 총장님이 이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장신호** 저는 인지하지 않고 있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잘 몰랐고 나중에 사후에 결재·보고 시스템에 의해서 센터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오늘 청문회에 오시기 전에 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증인 장신호** 예, 모니터링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이 아닙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단법인이 아니고 허위로 사단법인의 이름을 써서……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MOU할 때는 사단법인이 아니었지요?

○**증인 장신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런데 그 서류상에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지요?

○**증인 장신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원래 MOU 체결할 때 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이 아닌지 그 부속 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셨습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확인한 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에서 저희 센터에 국세청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했더라고요.

○**김대식 위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증인 장신호**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고유번호증이 국세청에서 공식으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사단법인 이름이 찍힌 그 고유번호증을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국세청의 권위를 믿고……

○**김대식 위원** 사단법인이 아닌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사단법인 인증을 해 줄 수 있나요?

○**증인 장신호** 저도 왜 국세청에서 그렇게 인증을 해 줬을까 하고 그것이 아주 의아하고요. 위원님들 아시지만 사실은 국립대학에서 직원들이 모든 국가 공인 서류를, 국세청에서 발급해 주면 인증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알지, 또 직원들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실제 그렇게 등록된 서류인지 확인은 했더라고요. 그렇지 그 이상을 저희가 찾아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저희 서울교대에서 모든 검증을 잘했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든 검증을 철저히 해서, 국세청이든 국가기관에서 제출을 했더라도 저희가 좀 철저하게 봐야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몇 개를 서울교대하고 진행을 했어요?

○**증인 장신호** 늘봄연합회에서요?

○**김대식 위원** 예.

○**증인 장신호** 딱 2개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11개 아닙니까? 11개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게 팩트 맞습니까?

○**증인 장신호** 프로그램은 늘봄교육연합회에서 과학과 예술 관련해서 그렇게 2개의 프로그램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 안에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장신호**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육부 브리핑에서 오석환 차관님께서 과학과 예술에 국한된 것이고 초등학교에서 서울교대가 진행한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어떤 역사교육이나 그런 콘텐츠는 없었습니다. 과학과 예술입니다.

○**김대식 위원** 2개인지 11개인지 이것은 팩트 체크를 한번 같이 하기로 하고요.

○**증인 장신호** 프로그램이 2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의 경우 이것은 네 번째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확인하셨어요?

○**증인 장신호** 예.

○**김대식 위원**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을……

○**증인 장신호** 예,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력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하면 저희 내부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선정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후에는 또 과학창의재단에서 외부 심사위원, 내부 심사위원 해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를 했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장님이 파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나서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증인 장신호** 예.

○**김대식 위원** 결과에 늘봄프로그램에 선정한 것을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두 가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교대는 리박스쿨의 실체를,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저 총장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서울교대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늘봄교육연합회에서 과학과 예술에 국한된 그 내용으로만 초등학교에 가서 진행을 목표대로, 사업의 원래 방향대로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대학 총장으로서 봤을 때 이렇게 본인들의 실체를 숨기고 MOU를 맺고 그리고 서울교대에 피해를 끼치고, 서울교대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계에 우려와 그렇게 힘든 상황을 준 데 대해서는 대학 총장으로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식 위원** 총장님, 사단법인이냐 사단법인이 아니냐 그것은 서류에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결론에 와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과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 여기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까 조금 전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는 겁니까?

○**증인 장신호** 피해는 과학과 예술, 그 수업을 초등학교에서 받고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강사들이 진행한 것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혀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피해를 본 것은 리박스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후에, 지금에야 알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국립대학과 우리 정부와 교육계, 교육부와 함께 이런 검증 시스템을 잘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교육계에 우려와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교대가 참여했던 이 프로그램 속에서는 역사 프로그램은 1건도 없었다 이것이지요?

○**증인 장신호** 없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아까 검증 과정에서 국세청이 사단법인임을 확인해 줬어요?

○**증인 장신호**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잠깐 보여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구두로 한번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도 보여 주시는데, 지금 구두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증인 장신호** 궁금하실까 봐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들고 왔는데요. 국세청 자료에 보면, 국세청 위에 제목이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거기에 국세청 직인 그리고 삼성세무서에서 인증을 해 준 국가서류로 그렇게 제출이 됐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게 인증을 해 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국세청의 직인까지 찍힌 이런 문건을 보고 나서 이 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안심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대는 굉장히 큰 피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서,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협력 업체와 함께하라고 돼 있는데 개인업체인지를, 그것을 보고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국세청 자료를 우리 모든 여야 위원님들께 전달해서……

○증인 장신호 제가 지금 보여 드릴까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보여 주지 마시고요. 저희 행정실에서 그것을 복사해 가지고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해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손효숙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리박스쿨 강의에 이 책자가 사용된 적 있지요, 이승만 전국 대통령 이야기.

○증인 손효숙 예, 저희 추천도서입니다.

○김문수 위원 아까 정을호 위원님이 예시했던 그 책과 아마 같은, 출판사가 보담출판사예요, 같거나 비슷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책 내용 중에 이승만이 국가 현정질서를 파괴한 사안을 옹호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학생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될 그런 현정을 파괴하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여순사건이라고 들어 봤어요?

○증인 손효숙 예.

○김문수 위원 여기에 반란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책에요.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에 의해서 반란이라는 표기를 쓰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 손효숙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여순반란이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순사건 법에 의해서 그 표기를 쓰면 안 되는데 이 책자에 민간인을 학살한, 이승만 정권 시절이에요. 이 사건을 여전히 반란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쓰고 있고.

두 번째는 반민족·반국가 친일 경찰들을 재기용하는 것을 옹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무기징역을 살거나 사형을 당해야 될 수도 있는 경찰들을 재기용했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옹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회 표결 원칙을 파괴한 사사오입, 3선 개헌 사건이라고 아세요? 들어 봤습니까?

○증인 손효숙 예, 들어 봤습니다.

○김문수 위원 들어 봤지요?

이 조작 사건을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재집권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풍요의 기반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3·15 부정선거 책임자를 대통령 이승만이 아니고 부통령 때문이었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어요.

자,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표기가 그대로 옳다고 생각하

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에 기재된 내용을 제가 다 알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책은, 아까 6·25 이야기와 또 건국 대통령 이야기는 저희 자유우파 진영에서 주로 읽어도 좋다라고 하는 추천도서로 그렇게 제공을 하거나 또는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제가 답변을 해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문수 위원** 능력이 없거나 자기 책임을 방기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교육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교육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저는……

○**김문수 위원** 그리고 전 자기 자신의 경력 중에 어떤 경력이 있어요?

교육부의 교육정책자문관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교육 관련된 본인의 경력이 어떤 게 있었지요?

○**증인 손효숙** 저는 공무원 근무하던 시절에 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으로 한 4년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또 이후에는……

○**김문수 위원** 어떤 공무원, 우체국장 출신이지요?

○**증인 손효숙** 예, 우체국이지만 저는……

○**김문수 위원** 우체국에서 몇 년 근무했습니까?

○**증인 손효숙** 저는 40년 근무했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런데 교육전문가예요, 우체국 전문가가 아니고?

○**증인 손효숙** 아니요, 교육의 경력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입 개헌 사건을 요즘 어린 학생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혹시 본인도 또 잘못……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에 3선 개헌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합니다. 그래서 재적의원이 203명인데 여기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개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필 135명이 찬성 투표를 한 거예요. 한 명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203명을 3분의 2로 수치로 나눠 보니까 135.3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반올림하면 136명이 되니까 136명이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로 이것을 통과한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 버리고 그리고 나서 3선을 한 다음에 당선이 됩니다. 이런 헌법 파괴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 이것 잘못됐다고 해야 되겠지요? 헌법 파괴 행위라고 봐야 되겠지요?

○**증인 손효숙** 그것은 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문수 위원** 헌법 파괴 행위가 아니다 이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위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계엄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헌법 파괴 행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과거의 이승만 독재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이런 내란, 계엄을 한,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그래서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해

야 되는데 손효숙 대표와 같이 이런 게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어떤 학생들한테 속이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재발된다고 보고 있고, 교육전문가가 아닌데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장관님.

○**증인 이주호** 예.

○**김문수 위원** 사사오입 사건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호**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편향된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면 이런 교재를 가지고 저렇게 교육정책자문관까지 자격증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호** 저희가 교육정책자문관 제도를 통해서 한 백이십 분 넘는 분들의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이렇게 교육정책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편향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본인도 이 책 다 못 봤다고 하고 또 장관님도 그 많은 자문위원들을 다 못 알아…… 그러면 누가 이것을 도대체 막을 수가 있고 누가 이것을 체크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보고 하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얘기입니까? 교육부장관님이 그런 것을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인 이주호** 앞으로 교육정책자문관의 선임 과정에서도 절차적인 부분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김민전입니다.

먼저 교대 총장님 자리 좀 앞으로 해 주시면……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앞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극우단체의 늘봄교육 침투라는 게 그동안에 여당 위원님들의 주장이었는데요. 전수조사하셨지요?

○**증인 이주호**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 침투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었나요?

○**증인 이주호** 아직까지는 편향 교육에 대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총장님, 이쪽으로 해 주시면 제가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이 반대편으로 와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서울교대가 운영한 운영사업 협약기관이 7개입니다. 맞습니까?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전체 7개입니다.

○**김민전 위원** 제가 이 7개를 보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서른이 넘은 애가 있는데요, 애가 10대 초반에 다닌 학원의 이름이 있어서 너무 재밌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보드게임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초반에 다녔던 게임 학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여전히 있어서, 이 학원이 이 보드게임즈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 왔나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찾아보니까 보드게임즈가 6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린 거대 사교육 단체더라고요.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장신호** 예, 그 보드게임즈가, 제가 실명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발표 자료는 가져왔는데 잠깐 말씀으로만 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하고 함께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그 공고를 보고 서울교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 중의 한 업체가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큰 그룹이었고요. 거기에서는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아실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프로 바둑기사가 본인이 프로 바둑을 소개하면서……

○**김민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울교대와 그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과정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또 이 사교육 업체가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교육 업체의 장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저는 처음 봅니다.

○**김민전 위원** 이런 교육업을 하시면서 교육사업을 하실 때는 그 단체장의 활동 이런 것들도 저는 조금 검증을 해 보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리아보드게임즈의 대표가, 소위 노동당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공지와 그 안에 게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지 내용 가운데 하나가 노동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노동당 내에 언더조직을 결성했다, 그리고 그 언더조직에서는 혼전순결 강요 등 다양한 반인권적인 행태 논란들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금을 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게시판에 언더조직을 폭로한 글을 보면 ‘우리는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조직이었다’ 이런 글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가 이런 학원에 다녔나 하는 생각에 아주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이런 글들도 놀랍지만 지금 이 대표가 현재 원내정당의 정책위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아십니까?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저는 지금 처음 봅니다. 모르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교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고 또 과학창의재단의 공모 계획에 따라서 그 절차대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 말씀을 앞에서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사실들을 미리 알고 있고 리박스쿨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고 했다라고 하면 아마 오늘 증인 신청을 했을 텐데 굳이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청문회를 하시면서 결국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발견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서울교대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하게 됩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 협약기관으로 타임교육이라고 하는 회사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타임교육도 엄청난 사교육 업체인 것 알고 계시지요?

○**증인 장신호** 예, 제가 이름은 들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런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게 총장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협력기관을 선택할 때 좋은 프로그램과 전국적인 강사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업체를 골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증인 장신호** 예, 그렇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보면 거대 사교육 업체들이 늘봄교육에,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침투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니냐,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증인 장신호**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저희가 봤던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업체 대표의 과거 성향이나 그다음에 그 업체의 활동 전력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에는 사실은 그것이 대학으로서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과, 우리 초등학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애프터스쿨, 방과후교실이 어렵기 때문에 방과후교실을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총장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곳은 사교육 업체가 아니라 서울교대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

그래서 늘봄교육에 대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대에 프로젝트를 준 것도 교대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드렸을 것 같은데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서울교대가 제일 좋은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 건 맞고요.

○**김민전 위원** 그런데 사교육 업체와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이들이 공교육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증인 장신호**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서울교대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교

원 양성대학 중의 한 곳입니다. 다만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계획서를 한번 보시면 그 속에 반드시 협력 업체와 같이 팀을 꾸려서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장님.

○증인 장신호 예.

○위원장 김영호 아까 국세청 자료를 받아 봤더니 삼성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증인 장신호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총장님 말씀하신 것은 국세청이 승인한 사단법인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 장신호 아니, 제가 사단법인이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금 이런 것 관리하는 데 행정직원이 한 몇 분 계세요?

○증인 장신호 지금 직원이 거기에 네 분 계십니다.

○위원장 김영호 저희가 이 사건 발생하고 나서, 사단법인 한국들봄교육연합회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제가 바로 의원실에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지 아닌지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교육부가 그것을 당장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간을 끌고 나중에 황당한 결과를 알려 준 게 ‘실지적인 사단법인이 아니라 업체명이 사단법인 둘봄교육연합회다’ 이런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학교 측에서도 사단법인 한국들봄교육연합회면 이 업체가 진짜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를 검증을 하셨어야지 아까는 마치 국세청이 승인한 것처럼, 그런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말처럼 했거든요. 그것은 학교의 허술한 관리시스템이에요.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 장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걸 어떻게 학교 측에서 정말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사단법인을 인정……

○위원장 김영호 국세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냥 이것 딱 직인 해서 보내줬으면 학교 측에서 한국들봄교육연합회가 진짜 어디 부처에서 승인한 사단법인이냐 아니냐를 가장 먼저 구분하셨어야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단법인이라는 허위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고유번호증을 받은 부분은 직원들이 받아서 세무서에서 해 준 거니까 권위와 공신력을 믿고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이후에 저희가 허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형사고발을 한 상황입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저 10초만 질문……

○위원장 김영호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김대식 위원님.

○김대식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위의 ‘사단법인’ 이것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증인 장신호 사단법인이, 그 업체에서 이름을 그렇게 해서 세무서에 제출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아니 아니, 그건 아는데 위의 큰 글자, 강조, 따옴표 해서.

○위원장 김영호 위에 강조한 것, 따옴표.

○증인 장신호 그것은 위원님들 잘 보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문정복 위원 사기 친 거예요, 이것! 이렇게 해 갖고 오면 안 돼요.

○김대식 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것 수정하세요.

○증인 장신호 예, 발표……

○김대식 위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증인 장신호 그것 원본이 있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로……

○문정복 위원 아니, 원본을 내야지 이렇게 조작해서 갖고 오면 어떡해요? 이것 보면 사단법인이라고 찍혀 있는 줄 알잖아요.

○증인 장신호 사단법인 뒤에 이름이 있는데 제가 발표……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원본 내세요, 원본.

○증인 장신호 예, 원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수원정 지역 국회의원 김준혁입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드리지만 제가 역사 전공자 출신으로 대학교수 하다가 국회 와서 교육위원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손효숙 증인 나와 주시지요.

손효숙 증인이 앞서 고민정 위원께서 전두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을 때 일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의 표현의 자유다 혹은 본인 마녀사냥이다, 근 한 달 동안 언론에 집중 조명되면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개인적인 고통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사람은 자기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도 지난 총선 때 제가 역사 유튜브에서 친일파들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 가지고 언론들이 짜깁기를 해서 굉장히 조작돼서 마치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엄청난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때 저도 고생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내용들이 단 한 가지도 역사적 사실과 어긋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공격했던 수많은 언론과 사람들, 지금도 편집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공격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손효숙 대표가 한 발언들이 그것이 역사 정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맞느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계시는 겁니다.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자유와연대라는 단체 출범식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인 맞지요?

○증인 손효숙 예, 맞습니다.

○김준혁 위원 본인이 전두환 바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어떻게 전두환을 바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국가가 5·18 내란과 관련해서, 5·18 학살과 관련해서 했던 그 범죄인 전두환이 잘했다는 겁니까?

○증인 손효숙 저희 애국 현장에서는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아니, 세상에……

잠깐만 계십시오.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애국입니까?

○증인 손효숙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준혁 위원 대통령마다 공과가 있는데 그런데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하는 게 애국이냐고요. 그것이 전두환의 공입니다?

○증인 손효숙 수많은 국민을 학살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준혁 위원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여기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바로 손효숙 같은 반애국자가, 학살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역사교육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손효숙 씨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은 마녀사냥이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증인 손효숙 위원님, 저는 공직자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자도 아닙니다.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애국 시민으로서……

○김준혁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개 시민이 저렇게 전두환 옹호 운동……

혹시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국민방위군 사건 아십니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알고 계십니까? 박정희 시대에 했었던 사법 살인들, 여덟 분의 인혁당 재건위, 무고한 사람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하고 여덟 시간 만에 사형시킨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탄압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로 명확하게 역사적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효숙 씨는 조금 전에 저 언급에서 여론전 해야 된다, 스마트폰 보급해야 된다, 무료로 나눠 주겠다.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 줄 돈 그건 어디서 나왔습니까? 손효숙 씨가 이야기하는 애국 세력이 준 것입니까? 그리고 왜 여론전을 하는 것입니까? 그 여론전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증인 손효숙 아까 그 영상에서 제가 스마트폰 나눠 준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준혁 위원 저 영상 아까 안 보셨어요?

○증인 손효숙 제가 스마트폰 무료로 나눠 준다는 얘기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준혁 위원 교육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손효숙 스마트폰 이용법에 대해서 알려 준다고 했습니다.

○**김준혁 위원** 손효숙 씨,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어떤 여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기술을 공유한다,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도대체 어떤 여론전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증인 손효숙** 여론전이라 하면 진보·보수가 바라보는 진영에……

○**김준혁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두환이 학살자가 아니라 전두환은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신 건가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런 얘기 할 생각도 없고요. 제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되는 중요한 사람도 아닙니다.

○**김준혁 위원** 중요한……

다시.

잠깐 계시고요.

별써 시간이 다 됐네요.

(책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 책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책이 바로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이 추천사를 쓴 책이고 손효숙 씨하고 아주 가까운 조윤희 씨가 대표로 있는 대한민국교원조합에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뉴라이트 사상의 충화입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수준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이런 책들이 보급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 대한민국교원조합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김주성 씨는 리박스쿨의……

표 하나 좀 올려 줘 보세요.

리박스쿨의 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이에요.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책 서문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게 과연 온당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 공감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 자리 마련할 테니까 그 자리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저는 제가……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내가 이런 말씀 처음 드리는데 지금 전두환 명예회복을 하자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징역 10년 언도받고 징역살이했고요, 박정희 때 유신 반대 투쟁으로 감옥 갔다 왔어요. 저도 희생자 가족이에요. 어떻게 이런 몰염치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같은 생각, 극우적인 생각에 대해서 또 이런 과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들과 또 민주진영의 인사들에게 사과하실 용의 있습니까?

○**증인 손효숙** 예, 제 발언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위원장 김영호** 피해자와 희생자가 지금 생존해 가고 계세요.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분들 앞에서 전두환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말씀, 광주에서 한번 해 보실래요? 자리 마련해 드릴게. 자신 있습니까?

○**증인 손효숙** 제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영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국회 청문회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손 대표님이라면 당시에는 몰랐어도 이런 짜장이 일어나고 국민들에게 정말 속죄할 일이 있으면 지금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한 번쯤은 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았다 그러면 저는 사과 한 번쯤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본인의 소신을 내가 꺾으라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 피해자가 지금 생존해 계세요. 오늘 이 발언은 정말 많은 국민들이 올화통이 터지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커다란 문제성이 있는 발언입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한번 해 보세요.

○**증인 손효숙** 제가 전두환 명예회복에 관심이 있다고 한 것은 우리 회원들이 일부 그런 일에 같이 의논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했지만 그것도 별씨 오래전 일입니다.

○**고민정 위원** 무슨 오래전이에요, 23년인데.

○**증인 손효숙** 23년이면……

○**위원장 김영호**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여튼 저는 손 대표님 정말 기회를 드리려고……

○**증인 손효숙**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제 사상에 대해서 무슨……

○**위원장 김영호** 손 대표님도 시민으로서 거리를 다니셔야 되고 공공버스도 타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정말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가실 것 아닙니까?

○**증인 손효숙** 제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타파 잠입 취재한 그 짧은 청년 여기자한테 당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이 아픈데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오늘 마지막 오전 질의로 박성준 위원님 질의하고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이주호 장관님.

○**증인 이주호** 예.

○**박성준 위원** 손효숙 대표님도 앞에 나와 계세요.

장관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이 어떻게 임명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손효숙 대표가 2023년 6월에 교육부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손효숙 대표 지금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부가 이렇게 허술한 겁니까?

○**증인 이주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한 백이십 분 이상의 분들을 교육현장에서 모셔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장관님 그러면 손효숙 대표는 전혀 몰라요?

○**증인 이주호** 전혀 모릅니다.

○**박성준 위원** 전혀 모르고 밑에 있던 이수정 정책자문관이 추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증인 이주호** 예,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여기 교육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합니까?

그리고 손효숙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손 대표 정치적 영향력이 너무 막강했어요. 그리고 가진 자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사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볼까요.

오늘 제가 보니까 역사교육을 할 능력도 안 되고 역사교육을 만들 단체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는 분이에요.

리박스쿨 대한민국 역사지킴이 대표를 역임했고,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설립해 가지고 회장까지 역임했고, 사단법인 YMCA 학교사랑연합 대표를 했고,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했고, 국가교육개혁협의회 공동대표를 했고, 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를 했어요. 이 정도면 한국 극우파 진영의 여성 대표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와 정치인들이 가깝게 지내고 싶었던 거고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극우단체 가서 연설하고 정치인들 손 잡고 극우단체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했던 것이지요. 아닙니까?

○**증인 손효숙** 극우단체라고 하시지 말고 자유 우파진영의 단체들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준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유 우파.

제가 인상적인 것 중의 하나가 손효숙 대표가 2017년도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창립총회를 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애국 시상식을 해요, 2017년 12월에. 누구를 애국자 시상을 한 줄 아세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없어요, 아예? 김상진이라고 자유연대 사무총장을 시상을 했더군요. 이분도 애국시민입니까? 극우파 아니에요, 김상진 자유연대? 아스팔트 극우파였지요. 이런 사람들과……

○**증인 손효숙** 저희는 애국시민이라고 부릅니다.

○**박성준 위원** 예, 그렇게 시민으로 생각하시고. 연대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라고요.

그리고 손효숙 대표 지난 대선 때 어떤 역할 했습니까?

○**증인 손효숙** 지난 대선 때요?

○**박성준 위원** 예, 김문수 후보하고 연대됐던 분 아니에요, 손효숙 대표는?

○**증인 손효숙** 저는 김문수 후보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은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하고 저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김문수 후보를 존경하는 것만 하고 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증인 손효숙** 예.

○**박성준 위원** 김문수 후보 전혀 몰라요?

○**증인 손효숙** 애국 진영에서 저는 그분을……

○**박성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르느냐고요.

○**증인 손효숙** 개인적으로는 모르지요.

○**박성준 위원** 개인적으로 몰라요?

○**증인 손효숙** 예.

○**박성준 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위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손효숙 대표가, 2018년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주최 행사에 김문수가 당시 등장해요. 김문수가 이때는 풍찬노숙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극우파 전선 전위부대의 선봉장으로서 김문수 씨가 나서요. 그런데 그 터전이 어디냐면, 손효숙 대표가 있는 프리덤칼리지라든가 극우파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데 있어서 그 터전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2018년 10월에 손 대표가 이끄는 프리덤칼리지장학회, 2020년 총선 필승 선거입문 정치교실 1기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거기에 김문수 전 후보가 ‘정치인의 길’이라고 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놀던 분을 우파 진영의 정치강사 데뷔시키고 정치 선봉장으로 만드는 터전이 여기예요. 그런데 그거 전혀 몰라요?

○**증인 손효숙**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을 존경하고……

○**박성준 위원** 아니, 지금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저한테 개인적인 인연이 없다면서요.

○**증인 손효숙** 개인적인 건 없지요. 그분이 애국진영에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다 마주칠 수도 있고 또……

○**박성준 위원** 아니, 어쩌다 마주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프리덤칼리지에 기고문도 쓰면서 실질적으로 손효숙 대표가 단체를 이끄는 데 있어서 김문수 씨가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건 뭐냐 하면 손효숙 씨가 하고 있는 단체에서 자유필승선거학교 교육생 모집을 해요, 2020년에. 총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리박스쿨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정치활동을 손효숙 대표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시민단체를 넘어서 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극우파 진영이지요. 그들과 손을 잡고 정치의 행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손효숙 대표가 이런 직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증인 손효숙** 지금 말씀하신 직함들은 저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서로 단체를 만들고 조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우남네트워크의 김인성 씨 알아요, 몰라요? 우남네트워크 대표였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우남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맞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김인성 씨 몰라요?

○**증인 손효숙** 알지요.

○**박성준 위원** 잘 알지요? 김인성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김민전 위원하고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우남네트워크 김인성, 윤석열 백골단 조직했던 사람이에요, 국회 소통관에서.

○**증인 손효숙**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알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을 한지는 저는 모릅니다.

○**박성준 위원** 리박스쿨, 우남네트워크, 백골단 운영진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국회에서 백골단 운영 위해서 선전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증인 손효숙** 그런데 백골단이 뭐가 문제가 있었나요?

○**박성준 위원** 장관님, 수준이 이 정도예요. 저 사람 지금 가장하고 있어요, 가장. 연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리박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추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터전이 된 거예요. 연결고리에 손효숙이라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성 대표가 중심이 돼서 극우단체들 만들어 나가고 국회까지 기자회견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 다 활동 토대를 만든 거예요.

손 대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뭘 이렇게 가식적으로 얘기합니까? 전혀 모르고, 영향력도 없고. 영향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직함 받습니까? 수많은 직함 가지고 있어 가지고 우파 진영에서 그 놀이 터전 한 거 아니겠어요?

○**증인 손효숙** 말씀드리지만 그런 단체들은 누가 급여를 주는 자리도 아니고, 누가 임명을 해 주는 자리도 아니고,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오늘 오전 질의는 끝났고 김민전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김민전 위원** 제가 사실 지난번 교육위 회의에서 이미 그 경과에 대해서……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 잠깐 서 계세요.

죄송합니다.

○**김민전 위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위원님들이 다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들을 국회 소통관에 기자회견을 주선했을 때에는 그들이 어떤 단체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전혀 한 바가 없고, 그러나 그 단체라는 이름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기자회견을 철회했다, 기자들에 대한 철회문도 다 돌렸다라는 얘기를 이미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또 제 이름을 얘기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김대식 위원** 잠깐만.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김대식 위원님 먼저 하셨고……

○**김대식 위원** 손효숙 대표님!

○**위원장 김영호** 이거 질의를 그렇게 하시면…… 의사진행발언이라서.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참 제가 답답해서……

○**위원장 김영호** 이따 질의시간에 직접 하셔도 되고요.

○**김대식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에.

○**위원장 김영호** 박성준 위원님.

○**박성준 위원**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제가 교육위원장이라서 수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전 까지 제가 질의를 지켜봤는데 지금 손효숙 대표님한테만 질의가 집중돼 있는데 손효숙 대표의 뒷배에 대한 얘기가 아직,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제보를 받았단 말이지요. 이따 오후 질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효숙 대표님, 대통령과 대통령 내외분과 통화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증인 손효숙**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까?

○**위원장 김영호** 검찰총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그건 확인하지요.

○**증인 손효숙**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못 믿는 건 아니라 여러 제보 중의 한 가지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후 질의가 오늘 국회 본회의가 있는 관계로 오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 서지영 위원님, 준비 아직 안 되셨어요?

○**서지영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천천히 하세요.

그려면 서지영 위원님 오후 질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서지영 위원** 부산 동래구 서지영 위원입니다.

서울교육대학교 총장님, 장 총장님 계시나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입니다.

○**서지영 위원** 총장님,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이번 문제로 인해서 서울교육대학교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한국늘봄교육연합회와 MOU를 맺은 것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예.

○**서지영 위원** MOU를 맺고 있는 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증인 장신호** 저희 서울교대가요?

○**서지영 위원** 예.

○**증인 장신호** 현재 전체 말씀이십니까?

○**서지영 위원** 예.

○**증인 장신호** 해마다 다른데요. 한 해에 한 20~30개,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서지영 위원 누적되면 굉장히 많겠네요?

○증인 장신호 예, 많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래서 교육대학교에서 사실은 역량들을 살펴보시는데 여러 가지 상세한 것을 다 검증을 해 가기는 굉장히 어려우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고소를 했다고 했나요? 소송을 냈다고 했나요, 지금?

○증인 장신호 예,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한국들봄교육연합회를 대상으로 하신 거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오전에 한창 문제가 됐던 게 사단법인으로 정식 절차가 등록된 게 아닌데 사단법인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국세청까지는 아마 사단법인으로 신고가 되고 서류가 나온 거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늘 여러 가지 업체들과 MOU를 맺을 때 MOU의 기준이 사단법인이어야 하는 겁니까?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사단법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한국들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국세청에만 신고된 상태였다면 사단법인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겠네요?

○증인 장신호 그래도 사단법인……

○서지영 위원 강의 내용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으셨다면서요.

○증인 장신호 사단법인이고 아니고 그것을 떠나서, 아침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늘 봄교육연합회가 리박스쿨과 연계되어 있는데도 서울교대를 기망하고 또 프로그램을 그렇게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늘봄연합회 출신 강사들 중에서도……

○서지영 위원 잠깐만. 총장님, 리박스쿨과 연계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게 늘봄교육 프로그램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서울교대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과학과 예술 수업을 진행한 데는 차질 없이 그리고……

○서지영 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서지영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보드교육 업체는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모든 계약 파기하시고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고소·고발을 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지영 위원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리박스쿨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보드게임 업체 그쪽의 대표자들이 했던 행태들이나 교대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똑같이 고소·고발을 하셔야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서지영 위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서울교대가 취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리박스쿨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 매우 커고 서울교대와 교육계에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지영 위원**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김민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업체에, 오늘 공개가 됐었는데요. 분명히 거기도 사상적으로 또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운영을 했고 MOU를 맺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저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요. 해당 업체가 우리 사회와 교육계에 지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미쳤다면 하겠습니다.

○**서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증인 장신호** 감사합니다.

○**서지영 위원** 차관님께 묻겠습니다.

○**증인 이주호** 예.

○**서지영 위원** 이 사태의 여러 가지 쟁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현안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차관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서지영 위원** 현안질의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늘봄교실에서 역사 편향적 교육이 일어났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 미치지 않느냐, 교육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리박스쿨이라고 속칭하는 곳에서 우리 사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댓글 조작 사태가 있었느냐, 마치 드루킹이나 이런 것처럼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교육위에서 저희가 소명하거나 질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강사들이, 총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하셨지요? 그 강사들이 처음에 11명이었는데, 지금까지 2차 조사까지 하셨는데 총 몇 명입니까, 관련 교사들이?

○**교육부차관 오석환** 2차 조사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159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은 강사들이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1차적으로는 저희가, 1차 2차로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서지영 위원** 아니요. 토플해 가지고 159명이 어떤 기관, 어떤 기관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기관으로 보면 리박스쿨,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늘봄교육연합회, 컨설팅연구원,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네트워크, 대한민국역사지킴이, 전부 협력기관들입니다.

○서지영 위원 그 모든 곳에서 강사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서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두 기관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1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2차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기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을 때 이 기관에서 강사 교육을 받았거나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그런 강사들이 참여한 교육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지영 위원 아니, 늘봄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주신 보고자료에도 2개 기관에서 교육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는 먼저 리박스쿨과 관계있는 기관 그다음에 리박스쿨의 늘봄행복이교실 강사를……

○서지영 위원 확인된 그 늘봄교실 강사가 자격증을 얻은 기관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 기관들이 지금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늘봄교육연합회, 컨설팅연구원…… 예컨대 컨설팅연구원 같은 경우에 리박스쿨 늘봄행복이교실이 민간자격을 발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나중에 추가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손효숙 대표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리박스쿨이 분명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왜곡된 역사교육을 한 단체 또 조직적 맷글 조작을 주도한 단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손효숙 증인이 7월 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리박스쿨 보도 이후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고 역사를 왜곡하려 했다는 올가미에 간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왜곡 교육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손효숙 증인,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역사왜곡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사를 왜곡했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동의가 안 됩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PPT 틀어 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손효숙 증인, 이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저 교육은 5년 전에 저희 리박스쿨에서 청소년 역사교육을 한 겁니다.

○백승아 위원 동의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증인 손효숙 예, 그 내용은 저희 강사가 한 내용이 맞습니다.

○백승아 위원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반민족행위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 지금 손효숙 대표가 말한 ‘친일 부역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속죄해라’ 이 논리 때문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고문하고 살인까지 했던 악질 고문경

찰 노덕술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 때 중용됐어요,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안 그래도 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백승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당히 왜곡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에 있는 문장은 다 잘라 버리고……

○**백승아 위원** 자, 그러면……

○**증인 손효숙** 저 내용만 말씀을 하셨는데……

○**백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묻는 말씀에만 대답하세요.

이 내용에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래서 저 청년 강사가 했던 것은……

○**백승아 위원**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리박스쿨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들어 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가 이기붕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3월 15일에 부정을 저지른 거지요. 명백한 부정선거이자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하고 독재하려는 부정 사태,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박스쿨은 명백히 사건의 본질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리박스쿨이 아이들 대상으로 친일파를 옹호하고 독립운동가의 협심을 깎아내리고 심지어 3·15 부정선거까지 옹호하는 왜곡된 역사적 사실을 교육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일부에 불과해요.

그런데 본인이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했다고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나 심신미약이다. 내가 왜곡된 사실로 지금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하실 때가 아니에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저도……

○**백승아 위원** 잘못한 것을 잘못이라고 말한 게 어떻게 마녀사냥입니까?

○**증인 손효숙**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할 타임이고요.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느냐’, 오전 질의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손효숙 대표가 너무나 영향력이 있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손효숙 대표로 있는 그 리박스쿨에서 늘봄학교라는 공교육에 강사를 투입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역사왜곡 교육을 공교육에서 하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증인 손효숙** 그 부분도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

○**백승아 위원** 또한 손효숙 증인은 같은 인터뷰를 통해서 ‘자손군은 사무실을 자주 찾던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며 만든 소모임일 뿐이다’ 또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전화번호 저장법, 택시 호출, 댓글 쓰기 등을 알려 드렸고 이왕이면 온라인에서도 의견을 표현하라고 권유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하면서 댓글 조작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이 아카이빙해 놓은, 지금은 비공개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민주당해산 국민운동본부라고 자칭하는 트루스코리아 카페의 글들을 좀 보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자손군 활동요령 보이시지요? ‘네이버 아이디 계정을 만든다’ ‘한 기사에 쓸 수 있는 댓글 수 3개가 최대’ 이런 식으로 죽 활동 내용이 나와요.

이 자손군 활동요령, 리박스쿨과 무관한 문서입니까?

○**증인 손효숙** 저것은 60대, 70대 저 같은 사람……

○**백승아 위원** 무관한 문서입니까?

○**증인 손효숙** 리박스쿨하고…… 예, 저희는 시니어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면서, 그중의 하나가 저렇게 SNS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이 문서 좌측 상단을 보십시오. ‘리박스쿨 자유존가락군대’라고 써 있습니다. 방금 손효숙 대표가 말한 대로 리박스쿨의 문서입니다.

다음은 리박스쿨 늘봄·손효숙 카테고리의 글입니다. ‘저번 주 자손군이 만들어 낸 베댓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략 100개 정도의 댓글을 작성, 2만 1000개 가량의 공감을 받으며 30개가 넘는 베댓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손효숙 대표가 운영한 자손군 활동과 무관합니까?

○**증인 손효숙** 자손군 활동가들이 저렇게 해서, 배웠다가 그것을 아마 실적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올렸던 걸로 저는 봅니다만……

○**백승아 위원** 그러면 자손군이 단순 어르신들 소모임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증거들이지요?

○**증인 손효숙** 어르신들이 SNS를 하기 시작하면서 여론……

○**백승아 위원** 여론 조성법에 따라서 배운 대로 활동을 하신 증거지요?

이렇게 리박스쿨은 명확히 아이들에게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한 단체 또 조직적 댓글 조작을 주도한 단체입니다.

손효숙 대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호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증인 손효숙** 저한테도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아니요, 아까 답변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마지막에 좀 드릴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 계세요.

○**증인 손효숙** 예,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손효숙 대표가 보유한 직책만 최소 열 곳에 달하는데요.

PPT 띄워 주세요.

조직적·계획적으로 다방면에서 제도권 진입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이 위의 극우 성향 단체 보이시지요? 아까 극우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우파라 불러 달라 그러셨지요? 저는 반민족 친일 단체라고 부르겠습니다.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청소년 지도·상담사, 고교학점제 강사까지 양성하고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침투하려고. 이런 손효숙 대표가 바로 교육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자문위원이었다는 게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다음 질의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효숙 대표님 마이크 좀 드리고요.

길게는 시간을 못 드리고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손효숙 백승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반론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청년들은 자기가 신사참배를 하고 또 동방요배를 하고 창씨개명을 하는 그 시절에도 일본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대한민국정부가 생기고 했을 때 그 정부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재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의미로 청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독립운동가 때려잡은 사람이 기용되는 게 잘한 거예요, 그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 사람 맞습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다음 질의 때 또 추가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조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훈 위원 조정훈입니다.

이주호 장관님, 아마 어쩌면 오늘이 교육위 상임위 마지막 나오시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팬찮으시면 소회를 들을 기회를 이따가 나중에 한번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 한 2년 8개월, 지난 정부의 초대 그리고 유일한 교육부장관 또 사회부총리로서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셨지만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진정으로 국회를 대하는 모습, 저는 굉장히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안질의, 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때 저는 늘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정부 여러 가지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중의 하나가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접근성이 없었던, 소위 돌봄 대란이라고도 불렸던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게 늘봄학교 아니겠습니까?

○증인 이주호 맞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1

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늘봄 이전에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오후 3시에 귀가를 하게 됨으로 해서 학부모들의 돌봄 대란이 한꺼번에 해소되는 그런 큰 효과가 있었고요. 또 1시부터 3시 사이에 아무래도 학원 빵빵이가 많았는데 학원 사교육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도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예상컨대 또는 희망컨대 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도 늘봄학교 제도만큼은 이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AIDT와 같은 갑작스러운 중단은 하지 않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차관님, 그런 늘봄학교의 정치적이고 또 좌든 우든 극단의 이념들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노력은 경계를 해야 되고 잘라 내는 게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훈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이 터졌을 때 늘봄교사 관련 민간자격증 전수조사 하셨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우선 관련되는 자격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지금 자격 운영에 있어서, 우선은 이 관련 자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러니까 자격을 관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아니하고 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원래 늘봄학교와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거짓·허위 광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행정적인 조치와 더불어 수사 의뢰했습니다.

○조정훈 위원 저는 수사 의뢰는, 경찰이 수사해서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때는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제없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번으로 여러 가지, 실은 이번도 있지만 과거에도, 제가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교육현장을 정치화시키려고 했던 시도들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야 할 것 없이 또 교육행정을 맡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시도는 단호하게 막으시고 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인현고 사태 기억나십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기억합니다.

○조정훈 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선생님이 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교육 내용을 한 사항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조정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에서 전교조 출신의 선생님이 소위 반일교육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발언을 하자 학생들이 먼저 이런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고 반발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위원 얼마나 편향됐으면 학생들이 이런 교육받고 싶지 않다고 했겠습니까. 그

때 당시 문제가 되니까 저희연 전 교육감이 사상 주입 아니다라고 혁신학교의 진보교사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도 했고요. 또 전교조 출신 장학관을 보내서 정치편향 교육 없었다 이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하게 되기까지의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단호하게 이 의혹들의 문제를 끊고 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정치적인 입장을 내고 정치활동을 하는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도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전교조의 활동들을 보면 어찌 보면 거의 교사노조들인지 아니면 정치 정당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지난 2014년에는 박근혜정부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하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면 안되는 행위들을 한 거지요. 23년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서울시 교사들에게 서명해 달라고 메일을 돌려 가지고 개인정보법, 정치적 중립 위반 관계로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극우파 교육은 안 되고 극좌파 교육은 된다 이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우리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 같은 말랑말랑한 생각과 정서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막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어느 선을 넘은 객관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정치 교육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계기로 교육부에, 모르겠습니다. 장관님이 곧 마무리하시는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봄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또는 여러 가지 노조활동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정치적인 활동 현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 적절하게 대응해야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이것은 우리 교육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가치인데 저는 이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이고요.

그래서 저는 다음 교육부장관이 언제쯤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정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손효숙 대표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동영상 준비해 주시고요.

(15시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5시0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대표님, 이 화면에 나온 여성 누군지 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압니다.

○문정복 위원 누구입니까?

○증인 손효숙 양메리 선생님입니다.

○문정복 위원 양메리가 누구의 친척이지요?

○증인 손효숙 양메리 선생님이 저때 저희에게 와서 교육을 할 때는 결혼하지 않았습

니다.

○**문정복 위원**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 맞지요?

○**증인 손효숙** 나중에 결혼한 겁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광훈 목사의 며느리 맞지요?

○**증인 손효숙**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손효숙 대표는 어떤 사이세요?

○**증인 손효숙** 저는 아무 관계는 아니고요.

○**문정복 위원** 아무 관계도 없으세요?

○**증인 손효숙** 예.

○**문정복 위원** 아, 그렇군요.

○**증인 손효숙** 광화문집회를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끔 저도 거기에 참석할 뿐입니다.

○**문정복 위원** 참석할 뿐이지 일면식도 없다?

○**증인 손효숙**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일면식도 없어요.

양메리 씨와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증인 손효숙** 애국 현장에서,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영어를 강의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따로 이렇게 찾아뵙고 교육을 부탁한 경우입니다.

○**문정복 위원** 양메리 씨가 애국집회 언제쯤 나갔을 때 만나셨어요?

○**증인 손효숙** 한 2021년 그 무렵인 것 같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닌 것 같던데.

○**증인 손효숙** 언제?

○**문정복 위원** 최근인 것 같던데?

○**증인 손효숙** 아니요, 최근에 제가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문정복 위원** 아, 그랬어요?

○**증인 손효숙** 그때 저희는 만나서 저희 리박스쿨에서……

○**문정복 위원** 그래서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에 강사로 초빙한 것은 손 대표님이 양메리 씨에게 직접 요구하신 거예요? 요청하신 거예요?

○**증인 손효숙** 저희들이 이제……

○**문정복 위원** 저희들이라 하면?

○**증인 손효숙** 저희들이라 하면 같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겠지요.

○**문정복 위원** 누가 했어요? 양메리 씨하고 접촉한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손효숙** 제가 직접 접촉한 것보다도……

○**문정복 위원** 그래서 누가 했어요?

○**증인 손효숙** 추천을 받았지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누구 추천이에요?

○**증인 손효숙** 글쎄요, 기억은 안 납니다.

○**문정복 위원** 거기는 그냥 누구 추천받으면 막 역사교사로 와서 강의하라고 해요?

○증인 손효숙 아주 훌륭한 강사입니다.

○문정복 위원 아, 훌륭한 강사예요?

○증인 손효숙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영상에서 얘기한 양메리 씨가 대통령 비상대권에 대한 정통성을 얘기하면서 12·3 내란의 정당성을 얘기했는데 손 대표님도 동의하셔요?

○증인 손효숙 예, 그것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사상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문정복 위원 그렇게 생각해. 그것은 양메리 자신의 그냥 저기다?

○증인 손효숙 예,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리박스쿨에서 양메리 씨한테 교육받는 아동들은 양메리 씨가 주입하는 역사 인식대로 그냥 받는 것에 대해서 주입되는 것에 대해서 손 대표님은 괜찮으세요?

○증인 손효숙 예, 그것도 최근이 아닙니다. 벌써 4년 전에.....

○문정복 위원 아니요, 어찌 되었든 이런 양메리 씨의 역사관이 리박스쿨에서 운영하는 아이들에게 주입되는 것이 손 대표님은 괜찮으시냐고요.

○증인 손효숙 예, 그런데.....

○문정복 위원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해서 저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의견보다도 그런 직접적인 수요자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내용을 요청한 것 같지는 않고요.

○증인 손효숙 학부모들이 하실 수 있겠지요.

○문정복 위원 리박스쿨에서 생각하는 역사 인식을 양메리라는 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동영상 하나만 더 틀어 주세요, 리박스쿨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영상자료 상영)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아시겠어요?

○증인 손효숙 예, 대한민국송 노래 부르는 겁니다.

○문정복 위원 아, 그렇지요.

이 아이들이 리박스쿨 사무실에서 연습하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연습하고 집회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것은 누가 주관을 해서 아이들을 거기 서게 한 거예요?

○증인 손효숙 부모님들이 원하고요.

○문정복 위원 부모님들 누가.....

○증인 손효숙 특히나 저 대한민국송은 노래로 배우는 역사 이야기일 뿐입니다.

○문정복 위원 어떤 미친 부모가 그런 것을 요청을 했어요?

○증인 손효숙 그런 부모님들도.....

○**문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 전체가 동의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 부모님들이 하신 거예요? 전체요?

○**증인 손효숙** 부모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부모님들 그 명단 내주세요.

○**증인 손효숙** 제가 어떻게 명단을 냅니까?

○**문정복 위원** 아니, 당연히 여기 리박스쿨에서 파견한 아이들이니까 명단 갖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손효숙** 제가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이거 내주시고요.

    이것은 부모님들이 요청했다라는 거 확실한 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거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손효숙** 그렇습니다.

○**문정복 위원** 이거 명단 주시면 저희가 부모님들께 다 연락해서 확인할 겁니다. 확인 할 겁니다. 명단 주세요.

○**증인 손효숙**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문정복 위원** 명단 주세요!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셨으면 그렇게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요청을 했고 그렇게 대답하셨으니 거기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명단 주실 거지요? 못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없으시다라는 얘기지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자신이 없는 것보다도……

○**문정복 위원** 자신이 있으면 주세요.

○**증인 손효숙** 저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학부모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문정복 위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된 것은 리박스쿨이라는 아주 개인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국가의 교육체계인 늘봄에 체계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리박스쿨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시겠어요?

○**증인 손효숙** 위원님,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주세요. 만약에 여기서 자료 안 주시면 손 대표님은 고발됩니다.

○**서지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서지영 위원님이 먼저.

○**서지영 위원** 방금 저희가 질의를 들으면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가 다 전수조사를 확인을 한 건 아니니까 동의를 하셨을 수도 있고 동의를 안 하셨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동의를 한 학부모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미친 학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문정복 위원** 아니,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왜 상대방 위원님들이 계속 발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십니까?

○서지영 위원 끼어들지 마시고, 제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문정복 위원 왜 문제 제기를 하십니까?

○서지영 위원 왜 못 합니까?

○문정복 위원 저는 서지영 위원님이 하는 거 문제 제기 안 합니다!

○서지영 위원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데 왜 문제 제기 못 합니까!

○문정복 위원 왜 문제 제기를 합니까, 상대방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서지영 위원 지금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정복 위원 그러면 정상입니까?

○서지영 위원 당연히 저는 그 국민들을 대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정복 위원 정상이냐고요, 그게?

○위원장 김영호 잠시……

○문정복 위원 그런 무대에 아이들 세우는 부모가 정상입니까?

○서지영 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님, 제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도 좀 하시고 서지영 위원님도 잠시 후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고요.

김대식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서지영 위원님이 했는데, 존경하는 문정복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토를 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국회 교육위이고 또 전체 학부형들이 보고 있는데 ‘미친 부모’ 이런 표현은 의도적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미친 부모’ 이 말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삭제하시지요.

○문정복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무대에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세우는 부모가……

○김대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세운 부모인데 그것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교육위니까 그 말은 속기록에서 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난번 제가 분명히 우리 상임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당도 해 보고 여당도 서로 번갈아 하니까 그 당시에 여당의 위원님들 야당 위원님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의 존중이 좀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서지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시는 데 좀 절제된 발언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을 향해서 미쳤다고 한다거나 어떤 국민을 향해서 정상이라고 한다거나 저희에게는 그렇게 국민을 단죄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인이나 아니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개인적인 정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제출하라고 손 대표님께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

고, 당연히 저 역시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국민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기록 삭제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기록에 남겨 주시고 국민들이 이것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마지막으로 문정복 간사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너무 이렇게 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문정복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집회에 올라간 아이들이 자의로 올라갔는지 타의로 올라갔는지, 그런데 손현숙 대표는 부모님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부모님 동의받지 않고 올라간 아이들은 아동학대를 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것은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니 위원장님께서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 입장에서는 법적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이것이 자료나 그런 제출을 안 했을 경우에 국회 차원에서도 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 문제를 서로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제보들도 들어오고 이 정황들이 잡혀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손효숙 증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4년 2월에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사업 주관기관 사업 공모에 지원한 바가 있으시잖아요.

24년 2월에 지원했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지원을 했는데 선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글로리 조합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굉장히 부실했어요. 평균 배점 10점을 차지하는 사업비 계획 항목은 0점 맞으셨어요. 그 결과 지원기관이 총 54개 중 꼴찌에서 세 번째 52등이었는데 창의재단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평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이 기관을 탈락시켰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당시에 늘봄학교 사업을 총괄한 김천홍 국장님 와 계세요?

국장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정황과 의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늘봄학교 주관기관 사업 공모와 관련해서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제가 알고 지금 다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떤 걸 부탁하던가요? 손효숙 씨 잘 부탁한다라는 지시면 지시, 받으셨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쟁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쟁겨 달라?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위원장 김영호 그게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하라는 압력으로 느끼셨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죄송하지만 교육부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 받았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대통령실로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대통령실.

교육부 공직자 출신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 받았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교육비서관이 대통령 의사 확인하지 않고 이런 거 지시하면 안 되는 거고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손효숙 대표한테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부인 김건희 씨로부터 혹시라도 전화통화를 받았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못 받았다는 것은 지금 계속 유지하시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고 나서 글로리 조합이 심사에서 탈락한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하는 항의 전화 또 받으셨지요?

제가 이것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증죄로 고발당해요. 또 받으셨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쟁겨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위원장 김영호 탈락된 이후에?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저희가 그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평가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평가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좀 압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탈락되니까 다시 전화를 해서 왜 탈락시켰냐라고 사실 문책을 한 것 아니에요? 항의를 한 것 아니에요? 맞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발표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발표하기 전에?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위원장 김영호 그 사람도 동일한 인물입니까? 맞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교육부 기조실장이 이 업체, 작은 업체의 탈락을 놓고 잘 부탁한다 잘 챙겨 달라 압박 넣고, 떨어지니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왜 이것 떨어뜨렸냐 항의한 거예요.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모른다?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저는 늘봄학교 담당 공무원들은 정말 잘했다고 봐요.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 주시고 교육현장을 지켜 주신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앉으십시오.

그런데 손효숙 대표는 기어코 24년도 10월 서울교대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및 강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한국늘봄교육연합회의 이름으로 업체명을 바꾸어서 말이지요. 이 부분이 의구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손효숙 씨는 이미 입장문에서 서울교대의 프로그램이 채택된 연유에 대해 ‘2024년부터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에 도전했는데 실패를 반복해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조언해 줬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맞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런 정보를 알려 준,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창의재단에서 이런 정보를,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이 공모될 거라고 조언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증인 손효숙 2월 달에 1차적으로 프로그램 늘봄 받고……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증인 손효숙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제가 낙방을 하고 그다음에 5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그사이에 많은 노력 끝에……

○위원장 김영호 아니, 낙방하고 나서……

○증인 손효숙 넣었다가 그때는……

○위원장 김영호 교대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창의재단에서 귀띔해 줬다라고 본인이 밝히셨잖아요, 문건에. 누가 그것 조언을 해 줬느냐고요.

○증인 손효숙 그때 저희가 했을 때 접수 시간을 한 5분 정도 놓쳐서 결국은 접수를 못 했는데……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그러면요, 우리가 여러 제보는……

당시 창의재단의 이사장이 조율래 이사장인데 맞습니까? 조율래 이사장이 좀 조언해 줬지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저는 그분은 모르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창의재단에서 미처 못 챙겼으니까 서울교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협력 업체로 선정해 준 거잖아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좋습니다. 그러면 조율래 전 창의재단 이사장은 MB 정권에서 이주호 장관 재임 시 차관을 역임한 분이에요.

이주호 장관님, 혹시 조율래 이사장에게 이와 관련돼서 연락받은 적 있어요?

○증인 이주호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이수정 정책자문관을 통해서 지시한바 있습니까?

○증인 이주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없으세요?

○증인 이주호 예.

○위원장 김영호 이수정 교수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시고요.

제가 진짜 많은 제보를 다 까발리고 싶은데 좀 절제해서 말씀드립니다.

손효숙 씨한테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 받으셨지요?

○증인 이수정 아니,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증인 이수정 예, 저는 받지 않은……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증인 이수정 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손효숙 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데 정책자문관으로 추천한 게 바로 이수정 자문관이시잖아요.

○증인 이수정 예, 자문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납득이 됩니까?

○증인 이수정 제가……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도 못하던 손효숙 씨인데, 손효숙 씨가 대표로 있는 함께행복 교육봉사단은 알고 계시지요?

○증인 이수정 예, 함께행복……

○위원장 김영호 자, 그러면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 직원에게 이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MOU를 체결하라는 압력을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증인 이수정 압력을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를 전했습니까? MOU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의사 를 전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인 이수정 도와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앉으십시오.

김천홍 국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왜 이렇게들 거짓말을 치시지? 국회가 정말 만만하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수정 자문관으로부터 손효숙 대표의 단체와 MOU 체결하라는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예, 작년 5월에 요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받으셨지요? 손효숙 대표가 국장님께도 직접 전화했지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전화는 아니고 문자를 보내 온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일반 국민들이 사업자가 이 교육부의 최고위직 국장에게 문자를 보내고 담당 정책자문관은 MOU 체결하라고 압력을 넣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수정 위원님……

○위원장 김영호 지금 모든 증언들이 다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증인 이수정 위원님, 위원님, 답변할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교수님, 잠시만요.

○증인 이수정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손효숙 대표가 국장님에게 직접 문자로, 어떤 내용을 문자로 보냈어요?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먼저 본인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제안할 게 있다고 해서 제가 답변하기를 우리 담당 부서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국장님 전화번호를 손효숙 대표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이수정 자문관이 알려 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이렇게 명확하게 이수정 자문관과 손효숙 대표의 관계, 대통령실의 압력 이것을 방관했던 알았든 교육부장관의 태도 이것이 교육부가, 대통령실이 직접 리박스쿨과 연관이 없다라고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겠어요?

앉아 계십시오.

저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교육부 공직자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런 메시지를 국민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질의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증인들 좀 솔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주호 장관님 정말 무책임하게, 저는 이주호 장관님과 소통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어찌 됐든 도의적이든 아니든 이 물의를 일으키고 이 사태가 나면 국민께 사과 한마디는 해야 돼요.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모두들 정당하다는 거예요. 이 교육이 정당한 교육이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건데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저는 정말 이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잘못한 것 있으면 솔직히 고백하고 ‘죄송하다’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교육부가 마련해야지요. 이것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은폐하면 됩니까?

그러면……

○증인 이주호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민정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교육부장관님께서 일단 말씀을 주시고.

○증인 이주호 그래서 우리 교육부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런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부에서 그런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또 편향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 하는 부분은 책임자로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강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지적하신 교육부 자문관이 본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추천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것도,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저는 지금 진행된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오히려 부서에서 그렇게 불편부당하게 일처리를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자부심을 동시에 느낍니다.

다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심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이주호 장관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사과하셨는데, 이것 정말 장관님도 이 복잡한 구도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터졌는데 국회에 출석 안 하시고 사실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도 장관님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다만 이제 장관님은 물러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말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 이수정 교수님이 뭐 해명하실 일이 있나 보시지요? 그러면 일어나서 답변을 좀……

○증인 이수정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손효숙 대표님은 지금 아직 질문하실 분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조금 쉬시고요. 자리에 가서 앉아 계세요.

○증인 손효숙 예,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밝혀야 될……

○위원장 김영호 다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자리에 앉아 계시고,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히고요.

이수정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수정 위원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자문관이기 때문에 부서 관료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의 지시를 받을 관료의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함께 행복교육봉사단이라는 그 봉사단체에서, 단장이 사실은 작고하신 고 천세영 교수님이십니다. 저의 대학 선배 교수님이시고요. 그분이 봉사단이라고 하면서 교육부와 MOU를 맺고 싶어서 교육부에 요청을 했다, 그런데 요청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전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께는 제가 해당 부서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며칠 뒤에 그 해당 부서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MOU 맺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것 동의한다고 그러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압력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수정 교수님, 알겠는데요. 지금 손효숙 대표가 나름대로 소신이면 소신, 본인의 이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해 오셨잖아요. 이수정 교수님이 그 사회 활동한 내역을 다 아시잖아요.

○증인 이수정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정도 모르면서 일면식도 없는 분에 대해서 교육부 공직자에게 MOU를 체결해 달라고 의견을 내주신 건데 얼마 전부터, 오늘 일이 아니에요. 벌써 얼마 전부터 교육부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자문관이 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은 다, 아마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자문관님은 그냥 의견을 전달했다고 그러지만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관이 3명이에요. 2명은 실지로 교육부장관님의 측근 맞아요. 그런데 본인은 측근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이 생각할 때는 3명뿐만 있는 교육부 정책자문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압력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우리 공직자 사회에서 압력 부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해도 느끼는 사람이, 공직자들이 그렇게 느낀 것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게 아십시오.

하여튼 충분한 말씀은 제가 잘 경청했고요. 다음에 손효숙 대표님 하실 말씀 주세요.

○**증인 손효숙** 창의재단에서 5월 달에도 등록을, 접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해서 제가 그쪽의 늘봄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신생 단체가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강사진들도 있고 한데 이 늘봄학교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으니 방법을 좀 알려 달라 했더니 이제부터 업체하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에는 전국에 있는 교육대학에 강사 연수라든지 프로그램 개발을 다 맡길 생각이니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을 찾아가서 제안을 해 봄라 해서 제가 서울교대 늘봄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효숙 대표님이 ‘저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지만 오늘 국민들이 이 장면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업에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직접 전화를 해서 압력을 가하고 또 당사자인 분이 교육부 최고위직 국장한테 문자를 보내고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 뒤에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사업자가 국장한테 연락하고 교육부장관 정책자문관도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교육비서관이 압력을 가하는 이것이 권력형 비리인 거지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오늘 조금 늦으셨는데……

○**고민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발언하고……

○**고민정 위원** 아니아니요, 이것에 관련해서.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간단히 해 주세요.

○**고민정 위원**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분들의 발언 가운데 허위 증언을 했던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문회에서 질의를 할 때는 모든 답변들이 진실일 거라는 가정하에 듣고 있는데 허위라는 게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끊고 넘어가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그것도 법적인 부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김용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태 위원** 교육현장에서 극좌 또는 극우적 성향의 정치의식이 전파되는 것을 경계하고 걸러내며 다양한 불법적인 이익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리박스쿨 사건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극우적 의식을 전파하며

그 단체 대표는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가교육을 문란케 한 시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청문회에서 언급된 교육 당국자 중에는 리박스쿨의 불법적 활동을 인지하지 못하고 극우적 측면들은 일부의 사항으로 간과한 채 일반적인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로 인식해 단체와 직간접으로 연계된 활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리박스쿨과 관련된 극단적 정치의식을 옹호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공모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서 교육 당국은 건전한 교육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효숙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박스쿨이 극우적 역사의식을 교육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용태 위원 왜 동의하지 않으시지요?

○증인 손효숙 저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뜻을 두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 전 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150여 개의 신생국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러한 기본적인 질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고 또 많은 것들을 성취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역사의 정통성으로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기본 가치로 알고 있고 그 건국과 또 건국에 따른 발전 또 민주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극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만·박정희 전직 대통령의 공과 과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이승만·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손효숙 이승만 대통령은 저도 이 나이가 먹도록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기본 체제 위에 나라를 세움으로 해서 당시에 동유럽 국가 44개 국이 공산화가 될 때 유일하게 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용태 위원 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과?

○증인 손효숙 이승만 대통령의 과라고 하면 지금 독재를 했다 그리고 그분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독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나라를 계속적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또……

○김용태 위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박정희 대통령의 과는 5월 16일 그것이 혁명이냐 쿠데타냐라는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하여 정권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적 과정을 겪었다는 것 그 부

분이 과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래도 오천년 대한민국 한반도의 가난을 물리쳤던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희는 중요한 공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 활동을 했다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증인 손효숙** 댓글 조작 활동 부분은 지금 제가 경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처벌을 받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손효숙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할 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증인 이수정** 그 당시에 교육부가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목적을 각계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성향의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여러 계층의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 그리고 정책에 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부모나 교사나 여러 시민들에게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소통과 홍보의 역할을 좀 많이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도 추천을 해 달라고 했고, 제가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계의 교수님들이나 제가 아는 교육 관계자들께 추천을 해 달라고 했고 그분들께서 몇 분 손 대표님을 추천을 해서 제가 그 의견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김용태 위원** 만약 지금까지 알게 된 사항으로 봤을 때 당시로 돌아가시면 다시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수정** 지금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의혹이 아직은 정확하게, 수사 과정에 있긴 하지만 조금 치우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행태들을 볼 때는 추천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태 위원** 예, 좋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장신호 총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예, 위원님 나왔습니다.

○**김용태 위원**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2025년 늘봄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서울교대 늘봄학교 협력 업체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단체에 대한 검증이 너무 부실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사업 요강에 따라서 저희는 좋은 프로그램과 전국 단위의 강사풀을 확보하고 있는 일곱 업체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모든 업체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협력 업체로 선정을 했고요.

그런 과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저희가 지켰기 때문에 부실 검증이라거나 검증을 잘못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총장으로서 제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용태 위원** 하나만 더, 이것이 문제 없었다고 하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절차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단법인도 아니고 개인사업자 상태로 신청한 것도 그렇고요.

○**증인 장신호** 예, 그 부분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국세청 자료를 보고서 그 부분이 1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체인 것처럼 해 가지고 냈던 부분은 저희가 그 때 그렇게 받았던 것이고요. 나중에 사단법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후에 문제점을 저희가 발견하게 된 부분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 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16시 10분에 속개하겠는데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뜨거워져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가라앉힐 텐데 특히 증인 분들,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정말 진실을 감추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씀하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든 용서를 구하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처음에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다가 그날 이후부터 공직자분들의 괴로운 처지나 마음 깊은 고민들을 좀 털어놓으시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주호 장관님이 나가시기 전까지 공무원들의 공익제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불이익당하는 공직자 없이 해 주시고 앞으로도 공익제보는 분명히 제가 책임질 테니까 꼭 해 주십시오.

공직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분명히 양심을 걸고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지금 하시던 것처럼 일을 좀 잘 중심을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대식 위원님 질의……

○**문정복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김영호** 예, 의사진행발언.

○**문정복 위원** 주질의 때 이수정 교수의 발언이 위증임이 밝혀졌습니다. 속기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다행히 저희가 유튜브에서 이수정 교수의 발언을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캡처본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틀고 이수정 교수의 답변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고발을 하는 거를 좀 확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향후에라도 다른 증인들을 계속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위원장님께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영상 트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보고요.

○조정훈 위원 간사들이 한번 먼저 봐요. 합의하기로 했었잖아요, 협의하기로.

○위원장 김영호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정복 위원 영상 트는 것도 합의해야 돼요?

○조정훈 위원 아니, 위증으로 고발할지 말지 협의하기로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의사진행발언 중에 고발 조치……

○문정복 위원 그러면 하시고, 둘이 나가서 좀 보고 오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영상은 틀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두 간사님께서 한번 영상을 보시고 위증이 확실하다 그러면 저한테 제안을 해 주세요.

첫 질의는 김대식 위원님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손효숙 대표님 계십니까? 이쪽으로 좀 나오시지요.

수고하십니다.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김대식입니다.

종교를 갖고 계십니까?

○증인 손효숙 예, 기독교인입니다.

○김대식 위원 기독교입니까? 직분은 뭐 맡고 계세요?

○증인 손효숙 교회 권사입니다.

○김대식 위원 아, 권사이십니까?

서두에 본 위원이 한 의사진행발언 보셨지요? 저는 원래 이 청문회를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질의에 우리 손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태도, 이 청문회의 명분을 오히려 손 대표님이 직접 만든 측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자리가 왜 열렸는지 알고 계세요, 대표님?

국민들께서 왜 이런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지 차분히 손 대표님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사 하는데 우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손 대표님이 일반 국민, 이거 할 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그러나 국민 눈높이의 말씀과 태도를 좀 갖춰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본인 자녀가 김은총 대표지요?

○증인 손효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늘봄교육연합회 대표를 맡고 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김대식 위원 그다음에 손효숙 대표님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었다면 그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야기, 그런 원인 제공 이런 부분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증인 손효숙 예, 조심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금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교육부장관님이나 지금 교육부차관님도 와 계시고 교육부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솔직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증인 손효숙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수많은 공직자들이 줄줄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부적절한 답변 이런 것을 통해서 공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증인 손효숙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면 리박스쿨에서 대표님이 역사교육이 됐든 어떤 교육이 됐든 본인 입장에서 본인이 평가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의 교육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부가,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손효숙 제가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의 교육은 주로 청소년 역사교육하고 그리고 청소년 진로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폰잘교실’, 주로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역사교육은 결국은 저희가 일반 공교육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 이 교육의 다양한 역사적 흐름과 역사적 인물, 배경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김대식 위원 이 청문회가 끝나고 돌아가시거든 지금 리박스쿨의 현주소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물론 열심히 하려다가 보면, 열심히 설거지 하다 보면 그릇을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잘됐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 수정 보완해야 되고 리박스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참 교육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지금 이 청문회 끝나고 나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손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증인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장관님이 마지막까지 너무 고생하시네요.

○증인 이주호 아닙니다.

○김대식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고 지금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있잖아요.

○증인 이주호 예.

○김대식 위원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정책은 저는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 가능한 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AIDT 이런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의결이 지금 됐는데 이걸 정말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야당 위원들뿐만 아니라 대통령께도 직접 국무회의 끝나고 한번 면담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고 충분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대 혼선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호 저희가 지금 전 정부 장관이 신임 대통령과 동거하는 그런 좀 힘든 시

기이지만 강조하셨듯이 저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정부 이야기이고 또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좀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난 국무회의 때 대통령께도 말씀을 감히 좀 드렸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늘 국회 법안 통과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법안 통과 전에 최대한 정부와 여당 관계자분들께서 한 번 더 협의하셔 가지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대식 위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1분만?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마지막 보충질의 안 하실 거예요?

○김대식 위원 예, 안하고 1분만.

○위원장 김영호 좋습니다.

○김대식 위원 보충질의 안하고 1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추가질의 안하는 걸로?

○김대식 위원 예, 추가질의 안하는 걸로.

○위원장 김영호 1분 드리세요.

○김대식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고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안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신교육정책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믹스해 가지고 한번 끝까지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그래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교육부장관 두 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평생 이렇게 바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리하고 떠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이주호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기자들 그리고 보좌진들 얘기 들어 보니까 오늘 청문회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굉장히 오늘 증인들의 태도에 실망스럽다는 평가, 분노한다는 국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혀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것 상당히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증을 해서는.

다만 오늘 태도를 보면서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 저희 위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위원님들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지만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과 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질의 시작하기 전에 손효숙 증인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총장님에게 마이크 좀 갖다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청문회를 보시다 열받은 어떤 분이 저한테 제보를 하셨어요. 이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손효숙 대표 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마녀사냥당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손효숙 대표가 직접 단톡방에다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 단톡방의 제목이 ‘뭉치자국민연합으로 윤정부 성공을 위하여’.

장관님, 이렇게 맨날 윤정부 옹호하라고 저런 분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엄청난 충격입니다. ‘리박스쿨은 12·3 계엄으로 한남동, 광화문 등 태극기집회에 쏟아져 나온 계몽된 2030 애국청년들이 시급 4만 원의 초등학교 늘봄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본인이 올린 것 맞지요?

○증인 손효숙 예,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예, 이 번호가 본인 번호예요. 계몽된 거예요? 2030 계몽된 이런 사람들 을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시키려고 한 거지요?

장관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넣게 지금 장을 열어 놓은 거예요. 총장님, 서울교대 뭐 그렇게 잘했다고 피해자 운운하십니까?

그다음요, ‘7월에 2학기 초등학교 늘봄강사 모집 공고 대거 많이 나올 것이니 부지런히 강사 양성해야 된다’. 그다음, ‘늘봄학교 관찰해서 방과 후 교육 시장 보면서 경쟁을 거부한 공교육이 사교육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 알게 됐고 자유우파 청장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늘봄교육을 자유우파 청장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지금 던진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장관님이, 총장님아.

그다음, 저보고 아까 심신미약이라고 하셨지요? 여기 보세요. ‘리박스쿨 손효숙 인사드립니다. 7월 2일 경찰조사 잘 받았고 7월 10일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언론들 논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큰힘이 됩니다. 담대하게 싸우겠습니다’, 이게 마녀사냥 당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얘기하신 분의 글입니까? 그리고 극우가 아니라고요? 여기 밑에 보면 손효숙 본인이 이것 올린 것 맞지요? 답변하세요.

○증인 손효숙 제 글은 맞습니다.

○진선미 위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안정권 대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문재인 대통령, 거기 가서 온갖 난리치고 극우의 대명사로 되어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안정권 대표 논리가 참 좋으네요’, 본인이 올리신 글이에요.

○증인 손효숙 예, 오래전에 올린 글입니다, 몇 년 전에.

○진선미 위원 어디서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7월 5일 날 올렸잖아요, 7월 5일 날. 맞지요?

○증인 손효숙 예.

○진선미 위원 7월 5일이 닷새 전인데 심신미약을 주장합니까? 국회가 우스워요? 사과하세요!

○증인 손효숙 그 글을 제가 쓰기는 했지만 제가 단톡방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무슨 소리세요? 지금 여기에 버젓이 올려 있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정부는 뭡니까? 명백한 사실을 갖다 대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사과하세요!

○증인 손효숙 위원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올린 글이 아닙니다. 글은 제가 했지만……

○진선미 위원 사과하세요. 글을 쓴 게 중요하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단톡방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진선미 위원 글을 쓴 게 중요하다고요. 담대하게 싸우겠다고 했지요?

○증인 손효숙 예, 많은 분들이……

○진선미 위원 그러면 심신미약이 맞습니까?

○증인 손효숙 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닌 것에 염려를 많이 하셔서 제가 문자를 띄운 겁니다.

○진선미 위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 단톡방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뒤에 보세요. 이것 한번 보여 주세요.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라는 분이 단톡방에다 12·3 계몽된 젊은이들을 위해서 늘봄학교 강사로 4만 원씩 주는 강사로 키워 주겠다고 이렇게 올리고, 그 계몽된 청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서부지법 폭동으로 49명이 1년에서 5년 구형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나쁜 어른들 때문에.

사과하세요!

○증인 손효숙 위원님, 제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몽된 청년이라고 제가 썼지만 그 청년들 중에는 능력과 또 자격과 또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진선미 위원 계엄에 찬성하셨지요?

○증인 손효숙 예, 저는……

○진선미 위원 계몽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계엄에 찬성하지요?

○증인 손효숙 예,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저희가 지지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장관님, 공교육현장에 이런 사람들을 넣겠다고 하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장을 열어 주신 거고요. 총장님, 사기당한 것이 자랑입니까? 적법한 사람은 다 뽑아서 팬찮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사과하세요!

○증인 장신호 제가 대학 총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선미 위원 장관님도 사과하세요. 이게 뭡니까, 결과론적으로?

○증인 이주호 이번을 계기로 해서, 특히 늘봄이 정규교육 못지않게 아이들한테 중요한 교육의 장입니다. 중요한 교육의 장인 늘봄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부가 좀 더 면밀하게 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형식은 연합회라고 했지만……

○위원장 김영호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가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금 아마 어느 지역의 단톡방에 있는 분이 오늘 청문회를 보고 화가 나서 문자로 제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효숙 대표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잘 판단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진실이 있으면 진실을 또 얘기하고 해명하실 일이 있으면 해명하시면 좋은데 위증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제보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판단해서……

○증인 손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저도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수정 자문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금 자문관에 대해서 당초 파견 취지에 맞지 않다, 또 본인의 전문성은 분명히 초중등이라고 여기 관련 교육 자문 검토인데 고등교육 관련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녔고 그것은 본인이 사립대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공정성의 침해가 분명히 의심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분이 간부회의에도 참석도 하고 장관의 업무보고를 하는 데 배석도 하고 그것은 사실 권한 밖의 일인 거예요, 분명히. 자문관은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특정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자문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월권행위라고밖에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권한이 없는 장관 측근들이 문고리 권력으로 교육정책들을 이렇게 자꾸 논의하고 개입을 하니까 오늘과 같은 이렇게 리박스쿨 같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 중에 핵심 이유가 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장관님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증인 이주호 위원님,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증인 이주호 예.

사실 자문관이나 보좌관들의 역할은 소위 말하는 라인 조직이 아닙니다. 결재권이나 결정 권한이 없고요.

○강경숙 위원 그렇지만……

○증인 이주호 다만 장관은……

○강경숙 위원 장관님, 그렇지만 제가 다 확인해 본 바인데요.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런 데 다 들어가셔서 본인의 의견을 냈고.

○증인 이주호 맞습니다. 그런……

○강경숙 위원 그리고 교육부장관님이 그것 보고받고 이럴 때 분명히 배석도 했습니다.

○증인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까 여기서 다 밝혀진 사실처럼 정책자문위원 추천했지요. MOU도 제안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자문관 추천 과정에서도 굉장히 되게 불편한 사실도 많은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많은데 권력 직권남용한 사실까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부 감사관님 여기 지금 나오셨습니까? 감사관님 있으세요?

○**교육부감사관 김도완** 예.

○**강경숙 위원** 제가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좀 신속하게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교육부감사관 김도완**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포함해서……

○**강경숙 위원** 자체 감사해 주시고 의원실에 보고해 주십시오.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관이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교육부감사관 김도완** 예, 저희들 진행되고 난 뒤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대한교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이렇게 늘봄학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에서는 전수조사를 했지요. 맞지요, 장관님?

○**증인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향적으로 하셨어요. 그것은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리박스쿨하고 오랜 기간 깊은 관계를 맺어 온 대한교조, 대한교조는 대한민국 교원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윤희라고 하는 위원장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사회교과서를 썼어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추천서를 쓴 김주성 위원장의 어떤 글들이 있냐면,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이렇게 ‘4·3 폭동이다’, ‘일본과 우호관계를 맺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야 된다’ 이런 글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손효숙 대표랑 굉장히 동고동락하는 사이이고 두 단체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국가 교육과정이랑 교과서 심의 관련 법률을 통해서, 손효숙 대표님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에요. 4·3 폭동이라고 합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법적으로 끝난 것이어서 교과서나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확고하게 사회가 이미 합의를 끝낸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역사적 용어를 쓰거나 그런다는 것은 위법이나 탈법에 해당되는 사안인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본인의 사상 검증을 하느냐 이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셨지만 사상 검증 차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검증을 다 끝내고 그렇게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부분을 자꾸 뒤집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이에요.

슬라이드 보시면 대한교조하고 리박스쿨은 23년에 협의회를 출범시켰어요. 협의회를 출범시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청소년 1만 명에게 이승만·박정희 독재 미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윤희 위원장은 우파 역사 콘텐츠를 우파 맘카페를 통해서 전국에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전략까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육부의 대처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워요. 아까 분명하게 늘봄강사들은 짧은 시간에 일하는 그런 강사일 뿐인데 거기는 전수조사를 했지만 조윤희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최근까지도 교육부 정책자문으로 일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는 아까 이수정 교수가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끝입니다.

○**증인 이주호** 차관님이 잠깐……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원노조의 대표로서 하는 활동이어서 저희가 면밀하게 쟁여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쟁여 가지고 위법 사항이 있는 건지 적절하지 않은 사항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경숙 위원** 대한교조 잘 살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을호 위원** 손효숙 증인님 앞에 나와 주시지요.

증인, 오전 질의에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차미연 모른다 본인 직책도 모른다고 주장 하셨다가 차미연 행사에 회원으로 몇 번 참석하셨다고 답변을 바꾸셨어요. 또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증감법에 따라서 허위 진술 시 고발된다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들으셨지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증인, 며칠 전에 변호사 통해서 기자와 문자로 답변 주고받으셨지요, 이 삼 일 전에?

○**증인 손효숙** 뭐에 대해서요?

○**정을호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차미연의 본인 직책 모르셨지요? 차미연에서 본인의 직책이 뭔지 모르셨지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한번 화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기자와 손효숙 증인이 답변한 대화입니다. 이삼 일 전이고요. 보면 기자가 어떻게 자문 위원이 됐는지 리박스쿨과 관계를 묻는 질문에 증인께서 ‘차미연에서 리박스쿨 뜻이 좋아 본인을 추천한 것 같다’라고 답변합니다. 즉 증인이 본인이 차미연 자문위원인 것을

최소한 3일 전에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위증이시지요.

또 오전 저의 올해 차미연과 리박스쿨 사업계획을 묻는 질문에 ‘제가 작성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화면 보시면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증인은 ‘차미연이 리박스쿨 사업에 관심이 많고 청년에 관심이 많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오전 내내 거짓말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이삼 일 전에 아신 것을 오늘만 잊어버린 건 아니시지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실 거예요? 이삼 일 전에 기자하고 문답으로 하신 것, 답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기억나세요?

○**증인 손효숙** 변호사를 통해서……

○**정을호 위원** 이제 기억나세요?

○**증인 손효숙** 예, 변호사를 통해서 낸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제 기억나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정을호 위원**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활달하시네요.

증인이 차미연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이것은?

○**증인 손효숙** 예, 행사에 가끔 참석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이 영상은 차미연아카데미 수료자들과 핵심 멤버들이 함께한 행사인데요. 증인도 참석해서 리박스쿨 소개하면서 견배사도 하고 화기애애하게 하신 것 같은데, 차미연 리더십아카데미 기억나시지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그때 청년 지도자들 수료하면서 이렇게 행사한 것은 제가 갔던……

○**정을호 위원** 차미연은 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리박스쿨과 차미연의 역사왜곡과 극우사상을 주입한 채, 보시면 지방의원들 출마 예정자들을 조직적으로 포섭해 온 극우정치 카르텔 양성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차기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교육시키는 장소예요.

화면 보시면요 이 결과로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총 26명의 지방의원이 당선됩니다, 이곳에서. 의원실에서 그중 18명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차미연 출신들 지역만 보시면 금천구, 경기 의왕시, 계양구 등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시는 분들이세요?

○**증인 손효숙** 위원님, 차미연의 아까 제 입장 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참석할 때 제가 자문위원인지 회원인지 모르지만 초청이 되면 가서 참석을 했을 뿐이었고요.

○**정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의원실에서……

○**증인 손효숙** 아카데미 일은 저는 모릅니다.

○**정을호 위원** 나중에 법적으로 책임지시고요.

리박스쿨과 한몸인 차미연 출신 지방의원들이 우리 동네 곳곳에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극우사상, 우리 역사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는 것 깜짝 놀랄 것입니다. 국민들도 놀랄 거고요 여기 위원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놀라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PPT 한번 보시지요.

차미연이 국세청과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6명 당선된 그쪽의, 도봉구의회에서 차미연에 1100만 원을 줍니다. 또 국회사무처로부터는 1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수령해서, 이 돈은 다 국민 혈세인 거 아시지요? 이 부분들을 다 다시 국민 혈세를 받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봤더니 중인이 대표로 있는 리박스쿨과 대한민국역사지킴이에 보내 주고요. 역사왜곡과 극우세력들에게 돈을 지원한 게 보입니다. 이것들은 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아까는 전혀 모르시는데 이 지원을 받아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제가 지원받았다고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자문위원인지를 몰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을호 위원** 1분만 더 할게요, 저도.

○**위원장 김영호** 1분 하면 추가질의 못 하십니다. 안 하실 거예요?

○**정을호 위원** 예, 안 할게요.

차미연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어디다 쓰셨습니까?

○**증인 손효숙** 저희 청년들 용역비, 아까 말씀드린 쇼츠 제작이라든지 그런 곳에 용역비 장학금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정을호 위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모든 중심에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증인께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다 모르고 있고 불리한 부분은 다 다른 분들이하신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숨기거나 속인 사실은 없습니다.

○**정을호 위원** 리박스쿨이 지방정치 아카데미, 차미연 이렇게 이런 분들 함께하는 부분들을 전혀 모르셨어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저는 그 부분은 모릅니다.

○**정을호 위원** 몰라요?

○**증인 손효숙** 저희가 한 행사가 아닙니다.

○**정을호 위원** 그러면 후원금만, 도봉구의회라든가 거기서 후원금 받은 것은 아시는 거지요?

○**증인 손효숙** 그건 저희들한테 일도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증인 손효숙** 그러니까 홍보……

○**정을호 위원** 어떤 홍보요?

○**증인 손효숙** 차미연을 홍보하는……

○**정을호 위원** 어떤 홍보요, 차미연의?

○**증인 손효숙**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을 홍보하는 내용들이지요.

○**정을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손효숙**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국민 혈세가 지금 위와 같이 반역사적인 부분들, 극우단체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근절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리박스쿨, 차미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공익법인의 의무를 방기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활동 정황까지 확인된 바가 있으니 위원장님, 교육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공익법인 실태점검과 필요시 세무감사까지 조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준비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손효숙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쭉 들어 보면 이게 늘봄학교가 아닌 또 지자체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게 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증인 손효숙 위원장님, 저는 차미연에서 했던 무슨 지방 아카데미 같은 것은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아까 여기 도봉구 사례 같은 걸 보면 일단 구의회의 예산을 받아서 영향력을 행사하신 것은 증명이 됐으니까요.

○증인 손효숙 제가 그쪽에서 어떤 돈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저는 내부라 모릅니다.

○위원장 김영호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신문규 교육비서관을 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신문규 교육비서관을 아시지요?

○증인 손효숙 모르는 분입니다.

○고민정 위원 문자 주고받은 적 없습니까?

○증인 손효숙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전화한 적도 없고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아까 위원장님하고 질의 과정 중에서 교육부 국장에게 압력을 넣었던 사람이 신문규 비서관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본인의 핸드폰은 현재 수사받고 있습니까? 압수수색됐나요?

○증인 손효숙 예, 포렌식도 다 끝났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핸드폰에서 압수수색 결과 신문규 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될 테니까, 만약 그게 확인이 되면 국회에서의 위증죄까지 추가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대표님께서는 대통령을 본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도 없고요?

○증인 손효숙 예,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대통령실 방문 몇 번 하셨습니까?

○증인 손효숙 대통령실 방문, 아이들 데리고 견학을 23년도에 한 두 번……

○고민정 위원 23년에 두 번.

○증인 손효숙 24년도에 한 두 번 그 전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위원 23년 두 번, 24년에 두 번. 그리고……

○증인 손효숙 이것은 그냥 제 기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고민정 위원 제가 확보한 것으로 보면 22년에도 다녀오신 게 사진 자료로도 남아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 대통령실에 계속 방문하셨는데, 저도 대통령실 근무해 봤지만 대통령실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대통령님의 일정이 있을 때,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럴 때 이제 초청 받아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대통령 만난 적 없다 하셨잖아요.

○증인 손효숙 예, 지금 만난 적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대통령 일정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을 방문할 수 있는 관람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증인 손효숙 그것은……

○고민정 위원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셨습니까?

○증인 손효숙 그쪽의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시민사회 초청……

○고민정 위원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는 김대남 씨가 연결해 주셨군요.

○증인 손효숙 처음에는 그렇게 되셨지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집회 현장에 가끔 나오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고 했었지요.

○고민정 위원 그렇지요? 김대남 씨가 보니까, 아까 강경숙 위원님이 보여 주셨던 그 사진에도 나오던데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창립기념식에 김대남 씨가 오셨고 그분이 거기서 무슨 발언을 하셨나? ‘단체의 발전을 지원하려고 한다. 앞으로 행사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석할 거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공론화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네요. 기억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저 그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오셨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고민정 위원 그것은 자료로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찌 됐든 김대남 씨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혀 접근할 수 없는, 보통 청와대는 공식 관람할 수 있는 신청 홈페이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런

데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횟수로만 보더라도 최소 다섯 번 대통령실을 방문하셨어요. 참 대단한 능력이시네요. 일반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 손효숙** 그쪽에서는 저희가 청소년들 데리고 간다고 하면 그렇게 일정을……

○**고민정 위원** 누구나 다 허락하나 보지요?

○**증인 손효숙** 일정을 잡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정 위원** 아, 그래요? 누구나 다 잡아 준다?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무려 다섯 번씩이나? 그것 말고도 얼마큼 더 확인돼서 대통령실과 깊이 관계가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아실 테고요, 대표셨으니까.

○**증인 손효숙** 예, 그것은 제가 처음……

○**고민정 위원**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셨습니까?

○**증인 손효숙** 그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일이고……

○**고민정 위원** 정확한 그 이름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장학생이라고 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저소득 가정일 수도 있고. 어떤 겁니까?

○**증인 손효숙** 제가 공직에 있다가 아스팔트 현장에 나와 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아스팔트 현장에 어렵게 시민운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서……

○**고민정 위원** 그러면 아스팔트 현장의 집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신 거예요?

○**증인 손효숙** 예, 그 청년들하고……

○**고민정 위원** 장관님, 보통 우리 장학회라고 하면 아스팔트 현장의 집회에 얼마나 나오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 주는 것 들어 본 적 있으십니까?

○**증인 이주호**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자료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보면, 제가 내부 자료 하나 확보한 건데요. 전업인 경우에는 월 100~150만 원을 주셨고 겸업인 경우에는 월 30~50만 원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보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성주 사드 현장탐방을 하면 1회에 100만 원 그다음에 민주노총을 감시하면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전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그런데 이슈집회 즉 집회에 참가한 아스팔트 청년들에게는 월 20만 원 이렇게 장학금 주셨네요.

○**증인 손효숙** 그것도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벌써 워낙 오래된 일이었고……

○**고민정 위원** 별로 오래된 것 아니에요.

○**증인 손효숙** 그게 아마 2017년도에 제가 만든 단체인 것 같습니다. 벌써 오래됐고 또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제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이파 그러면 추가질문할 테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증인 손효숙 예.

.....

○위원장 김영호 그 장학금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재정을 마련할 수 있지요?

○증인 손효숙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만.....

○위원장 김영호 기업에서도?

○증인 손효숙 아니요,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냅니다. 10만 원 5만 원, 어떤 분들은 20만 원 30만 원 그냥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내용도 수사 당국에다가 제출하셨어요, 자료를?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자료제출하셨어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국 위원 손효숙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쪽으로 좀 빨리 가세요. 시간 멈춰 주세요.

○위원장 김영호 시간 멈춰 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 주세요.

○정성국 위원 지금 1초도 아까운데요.

○위원장 김영호 그래서 5분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정성국 위원 손효숙 대표님,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뭘 시켜 주고 싶어요?

○증인 손효숙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성국 위원 아니, 본인이 한 이야기를 본인이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증인 손효숙 그것은 제가 그냥 기록을 남겨 놓은 것을 이렇게 취득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런 걸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취지였는지 사실은 제가 잘, 왜 그랬을까에 대한.....

○정성국 위원 본인이 그러면 그런 말을 한 것은 봤지요, 방금 그 동영상에. 민주당 위원님이 제시할 때 전두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애쓰겠다는 말 본인 입으로 말한 것은 봤지요?

○증인 손효숙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손효숙 저는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역사의 뒤판길로 사라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성국 위원 그것은요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민 상식에 에 맞지 않아요.

저희 국민의힘의 당대표실로 쓰는 228호를 가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만 걸려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왜 전두환의 사진이 안 걸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전두환의 명예회복 시켜 줄 것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 시킨 데 대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인 손효숙 예.

○정성국 위원 들어가세요.

장관님.

○증인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차관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치 현황을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할 때 이랬거든요. 민간자격을 교육부 인가 자격인 것처럼 홍보해서 수강생을 모집했다 했잖아요, 언론 보도에. 이게 사실이었지요?

○증인 이주호 예.

○정성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린 엄중한 잘못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교육부가 조치를 했어요?

○증인 이주호 차관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거는 거짓 광고·홍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수사 의뢰했고요. 수사 의뢰하고 난 다음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저는 이주호 장관님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기 때문에 리박스쿨과 이주호 장관님이 관계가 없다고 사실상 확신합니다. 그걸 변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주호 장관님의 그동안의 교육열이나 교육관, 생각을 저는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단체와 이런 일이 생긴 데 대한 장관으로서의 죄송함은 가져야 되겠지만 이주호 장관님이 개입되어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장관님, 맞지요?

○증인 이주호 예, 그렇습니다.

○정성국 위원 제가 본 이주호 장관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으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장관님, 그래 주십시오.

○증인 이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차관님, 2페이지에 보면요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합동으로 10개 학교를 현장점검 했는데 교육의 중립성 위반을 확인했다 했거든요. 그렇지요? 2페이지 학교 현장점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 위반 등 어떤 게 중립성 위반이었는지 확인했습니까? 혹시 여기 조사된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여기에서 교육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실제로 수업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이 중립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지금 과학하고 예술 과목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학부모님들이 혹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센터를 마련했고요. 그 이후에 또 만족도 조사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또 신고채널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6월 9일부터 신고채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지요. 혹시 신고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재까지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얼마 전까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10건이 접수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울교대 장신호 총장님.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1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러겠습니다.

○**정성국 위원** 지금도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시간 철저히 지켜야 되잖아요.

장신호 총장님.

○**증인 장신호** 예, 나왔습니다.

○**정성국 위원** 서울교대학교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곳이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정성국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피해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기관장의 도리가 아닙니다. 맞지요?

○**증인 장신호** 예.

○**정성국 위원**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거슬립니다.

○**증인 장신호** 면목이 없습니다.

○**정성국 위원** 기관장의 역할이 뭐지요? 기관장의 역할이 뭐예요?

○**증인 장신호** 대학 총장으로서 정상적으로 대학 운영이 또 저희가 교육대학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교육적이고 정당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성국 위원** 기관장은 잘못이 있으면 일단은 나의 책임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기관장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교대가 이 단체하고 MOU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인 장신호** 예.

○**정성국 위원** 저도 한국교총 회장 하면서 MOU 맺은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MOU를 맺는 기관은요 사실 좀 많이 살펴보고 검증을 합니다. 그렇지요?

○**증인 장신호** 예.

○**정성국 위원** 이것 부실 검증 아닙니까?

○**증인 장신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과 강사의 풀을 보고 선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성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세

요?

○**증인 장신호**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매우 유감입니다만 면목이 없습니다만 국립대학들이 또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불법적인 이면 활동까지 저희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수 위원** 순천갑 김문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극우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합리적인 보수라고 해서 구분을 해서, 합리적인 보수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정치에서 양쪽의 한 날개로 잘 자리 잡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극우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정성국 위원님 말씀처럼 전두환은 아예 국민의힘 당사에 조차도 사진을 붙여 놓지 않을 정도로, 그건 학살자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명예를 존중한다 마다 이거는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승만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리박스쿨에서 교재로 사용한 이 책에도 보면 현정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서 128페이지에 보면 아까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여수 순천 등에서도 반란이 일어났다’ 이렇게 반란 표현을 쓰는 것도, 학살을 해 놓고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131페이지에 보면 ‘친일 출신 경찰을 일부 등용하긴 했었지. 하지만 그건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불안정했던 치안을 확고히 하려고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던 것으로 보여져’ 이런 표시가 있는데 아까 손효숙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친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948년도에 반민족행위처벌법이라고, 그 법에 의하면 한 600명 정도 그리고 최근에 보면 친일인명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약 4000명 정도가 등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친일파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경찰로 따지면 당시 경부, 그러니까 지금은 경감 파출소장 이상을 말해요. 순경 같은 사람들은 일제 때 근무를 했어도 친일파조차로 우리가 분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렇게 엄격하게 하고 있고.

군인들도 일본 군대 또 만주 군대에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려 다녔던 그 사람들, 소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친일파라고 해요. 거기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부 고등관 이상, 국장이나 도지사 이상을 친일파라고 하지 그 밑의 일선 공무원조차도 일제 때 총독부에 근무를 했어도 소위 친일파로 분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비판하고 뭐라고 하는 친일파는 이런 4000명 정도의 고위직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고 일제의 편에 섰던 자들을 얘기하는데 얼렁뚱땅 그걸 섞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친일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런 극우적인 잘못된 사

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서울교대 총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이 책의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을 이렇게 교육합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대학 총장이지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몰라요? 제가 알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초중고등학교에, 서울에 131개 부산에 60개 등 등 해 가지고 전국 677개 학교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장관님, 이것 수거해야 되거나 내용을 수정하게 하거나, 최소한 둘 중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이주호** 저희가 학교 도서관 도서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있는데요.

차관님이 잠깐 설명하시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학교 내에서 교육되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수거하는 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별도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 방안은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위원** 교육부가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이주호** 예, 교육감님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권고를 통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사실 제가 앞에서 질의드릴 때 코리아보드게임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의 중립성이 지켜져야 되겠다, 교실에서 지나치게 정치편향적인 교육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교육에 비해서 지금 현재 공교육이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 공교육조차도 사교육이 들어와서 이것을 다 장악한다고 하면 도대체 공교육의 미래가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코리아보드게임즈의, 그와 같은 대규모의 사교육 업체가 늘봄교육에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대표의 경우에는 노동당에 언더 조직을 결성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상조사를 당하고 이 때문에 탈당을 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이 코리아보드게임즈 회사 김 모 씨의 경우에는 지금도 모 원내정당의 정책위원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정책연구소가 소속된 재단법인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과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업체가 타임교육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의 대표인 이 모 씨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싱가포르 순방할 때 함께 싱가포르에 순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업체 대표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고, 지나치게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고 잠식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교육 업체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이 좀 지켜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에 교실에서 있었던 정치편향적인 얘기들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20년 경기 혁신교사의 수업 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말을 지금 PT 화면에 가지고 왔는데요.

초등학생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쏴서 죽인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게’라고 하니까 교사가 ‘이것이 종전이 아니기 때문에 총을 쏜 것이다’라고 해서 마치 총을 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고요. 또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와 있는 거야, 남의 나라에서’ 이게 한미동맹에 대한 올바른 인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교육부가 어떻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사후 조치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2022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고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이승만은 생양아치다. 여자나 꼬시고 다녔다’ 이런 얘기,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지나친 미화도 반대합니다. 그야말로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건국의 시점을 어디로 잡든 간에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생양아치다 이렇게 자학적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뒤에 그 교사가 한 얘기가 좀 더 나옵니다. ‘국채 발행한 뒤에 인 마이 포켓 해서 여자를 꼬시고 다녔다. 이런 양아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길러 주는 교육인지 또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교육인지 또 교육이라고 하는 게 공과 과를 항상 같이 가르쳐야지,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는데 과연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듯이 가르쳐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저는 교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교육청이 1차적인 감독기관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적으로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편향 교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2년 경기꿈의학교 운영자의 경우에는 퇴진 집회 참여에 대해서 봉사시간 주겠다, 인정받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김어준 씨의 유튜브 가지고 수업에 인용한 경우들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학교교육이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물론 교사 한 명 한 명의 정치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혁 위원** 손효숙 대표님 좀 나와 주시고, 저쪽에 먼저 나와 주세요.

장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PPT 먼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강경숙 위원님께서 대한민국 사회교과서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장면 앞의 추천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 ‘누가 대한민국을 세웠냐고 물으면 더듬거린다.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되짚으면 겨우뚱하고 ‘김’ 하다가 만다. 김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건국에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서 하나 보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다가 정리한 건데 ‘4월에 일본은 대한제국 병합 방침을 결정하였고 1909년 10월에 통감에서 물러난 이토는 안중근의 총에 죽었다’ ‘안중근의 총에 죽었다’, 제삼자 서술이지요. 황당하지요.

‘국내에서는 일진회가 연방제 모양의 합방을 주장하였다. 병합론은 더욱 강해졌다. 마침내 1910년 9월 22일에 대한제국 황제가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황제에게 넘어갔다’ ‘병합론은 더욱 강해졌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합론을 더욱 강하게 해서 일본이 어쩔 수 없이 통합했다는 건데요.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추천사에, 하나는 본문에. 이 책의 중심은 대한민국교원조합인데 여기 대표는 조윤희 씨인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조윤희 씨하고 손효숙 대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조윤희 씨도 장관님하고도 관계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 상황에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글을 쓴 사람이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입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교육계 수장이신데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역사 연구기관의 이사장이, 한국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이 엄청난 잘못된 서술과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계속 임명하게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걸 일찍 아셨다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증인 이주호**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기 힘듭니다만 지적하신 역사에 대한 그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김준혁 위원** 이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이배용 위원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지만 원로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손효숙 대표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손효숙 대표님, 아까 계속 일관되게 나는 필부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고민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실 들어가는 것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연단에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그런 것 못 합니다.

손효숙 대표 뒤에 아무 배경 없다는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는 데 이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리박스쿨의 자유필승학교장이 누구냐? 고영주라는 분입니다, 고영주. 고영주 잘 아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김준혁 위원 고영주가 했던 가장 대표적인 말, 어떤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산주의자’ 이야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엄청난 인물이, 지금 극우의 상징이에요. 본인은 애국자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사람입니다.

트루스코리아 정부영, 이 사람 여기 다 있고 그 옆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인 김주성, 리박스쿨 정치학교장입니다.

○증인 손효숙 그것은 별씨 오래전의 일입니다, 위원님.

○김준혁 위원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있었잖아요.

○증인 손효숙 2020년 그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준혁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2020년…… 이 리박스쿨 관련해서 지금 짚고 넘어갈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안에 보십시오.

○증인 손효숙 이것은 사실입니다.

○김준혁 위원 조윤희 대한교조, 다 여기 멤버들 아닙니까? 지금 이 엄청난 극우 세력들이 다 손효숙 씨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국방정신전력원하고 MOU 체결해서 장병들한테까지 잘못된 극우사상 주입시키려고 했잖아요. 한국일보 기사도 다 나와 있는데, PT 있으면 바로 좀 옮겨 줘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어린이·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병들한테까지 이렇게 정신교육 노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윤희 씨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손효숙 씨하고 연관돼 있는 거예요. 본인은……

○증인 손효숙 서로……

○김준혁 위원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증인 손효숙 아니요, 서로 협력하는 단체별로……

○위원장 김영호 나중에 내가 답변시간 드릴 테니까요.

○김준혁 위원 이것은 명백한 기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손효숙 씨가 이야기하는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막 심장이 떨린다, 이런 이야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극우 세력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역사관 그리고 친일적 역사관 그리고 선동적 역사관 이것을 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준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손효숙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하십시오.

○증인 손효숙 예,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그때 저희 단체에서 정치학교라든지 선거학교를 하면서 재야의 운동하시던 분들, 고영주 변호사님이나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요. 그때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세요.

○증인 손효숙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전부 다 같은 이런 한 네트워크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한때 협력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태.....

○김준혁 위원 제가 1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니, 이따가 하세요.

김용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거지요?

○김용태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한테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김용태 위원 안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김용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태 위원 이주호 장관님께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민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보면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편향된 교육들이 아직도,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오늘 리박스쿨과 관련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또 잘못된 판단들 이런 교육들,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의 교육이 모두 다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우리 교육현장이 왜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오늘 짜증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교육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극우·극좌는 교육현장에서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 이주호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면 헌법가치이자 또 우리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로서도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오늘 국회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서 향후에 정말 더욱더 교육부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훼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김용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손효숙 대표님 앞에 나와 주시고요.

그리고 예혜란 국장님 계신가요?

마이크 좀 주실래요?

시작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늘봄지원국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협약식을 맺고 업무 협약을 하고 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를 통해서?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연합회가 서울교대를 통해서 교재교구비가 나간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1100여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고 서울교대가 반납을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성준 위원** 이미 받았어요?

○**교육부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예.

○**박성준 위원** 알겠습니다.

앉아 계시고요.

손 대표님, 지금 김준혁 위원님도 그렇고 손 대표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202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알던 사람들에 의해서 연장선상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극우 교육을 했던 사람들이고 보수에 있어서의 유력 인사들이기 때문에 손 대표도 저 사람들과 만나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 인정 안 하세요?

○**증인 손효숙**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다시 새기게 됐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손 대표님이 어떤 영향력으로 교육부의 국장한테 문자 넣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것 손 대표 뒤에 큰 뒷배가 있으니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이, 아까 소시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소시민이 교육부의 국장한테 문자 넣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부탁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문자를 보냈는데 국장이 안 들어 주면 너 혼 좀 난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되는 거예요. 왜? 손효숙 대표가 그만큼 영향력 있고.

이름도 있잖아요, 처음에 탈락을 하잖아요. 앞서 김영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모사업에 탈락을 하니까, 사업기획서가 0점 받았어요. 한국늘봄연합회로 이름을 바꿔서 손 대표의 딸 김은총 씨가 대표로 해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창의재단 공모사업에 했던 것하고……

○**박성준 위원** 떨어졌고, 창의재단은 떨어져서 그 이후에 늘봄연합회가 다시 서울교대와 해서 그 공모에 선택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손효숙** 그 공모사업하고 서울교대에 프로그램 제공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박성준 위원** 다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기획서들을 볼 때 그러한 기준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손 대표가 김문수 후보 모른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분을 알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소에 존경하기도 하고……

○**박성준 위원** 아니 아니,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 앞에 전혀 일면식이 없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증인 손효숙** 예,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했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분하고 연락을 취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리고 지금 양메리 씨 시아버지인 전광훈 목사하고도 일면식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증인 손효숙** 일면식이라 하면 제가 그분이 공인으로서 집회 현장에 나오기 때문에 아는 것뿐이지 그분하고 직접 소통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은……

○**박성준 위원** 집회 현장에서 만나고 인사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

○**증인 손효숙**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런 일은 없어요?

○**증인 손효숙** 제가 그분한테 개인적으로 인사 나누고 할 일은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김상진 자유연대 대표는 알지요?

○**증인 손효숙** 자유연대 대표는 알지요.

○**박성준 위원** 잘 알지요?

○**증인 손효숙** 예.

○**박성준 위원** 그다음에 신자유연대로 탈색해서 김상진 대표가 됐고 기존의 또 다른 자유연대의 이희범 대표 잘 압니까, 모릅니까?

○**증인 손효숙** 이희범 대표도 잘 압니다.

○**박성준 위원** 잘 알지요?

○**증인 손효숙** 거기서 제가 처음……

○**박성준 위원** 그러면 이희범 대표는 김문수 전 후보하고 잘 압니까, 모릅니까?

○**증인 손효숙**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면 김대남 씨 잘 압니까, 모릅니까, 대통령실의 전 행정관 했던?

○**증인 손효숙** 그분은 이제……

○**박성준 위원** 잘 알지요?

○**증인 손효숙** 예, 시민사회 활동을……

○**박성준 위원** 김대남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증인 손효숙**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한 사람인데 시민소통실이 태극기집회 주관했던 사람들이에요, 태극기집회, 대통령실에서. 이건 추후에 아마 밝혀질 텐데 태극기집회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관련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김대남 씨가 그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큰 거고, 그래서 김대남 씨도 이희범을 아는 거고 손효숙 대표를 아는 거예요. 그 태극기집회의 주된 세력이 누구예요? 전광훈 목사 아니에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단체장들 이렇게 모인……

○**박성준 위원** 이희범 씨가 자유연대 대표이면서 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도 했지요? 그

건 알고 계시지요?

○**증인 손효숙** 그건 모르지요.

○**박성준 위원** 애국시민이라면서 이걸 몰라요, 왜?

○**증인 손효숙** 아니, 그분이 그런 직함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

○**박성준 위원** 뭐냐 하면 손효숙 대표가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큰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 윤석열 정권의 태극기집회를 이루는 이런 정치적 연사와 관련된 사람들과 상당히 깊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사람들이고 윤석열 권력을 유지하는 광화문집회 팀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손 대표가 그러한 역할에 있는 사람들과 개인적 유대관계를 만들어 낸 것이지요. 그것이 언제 또 이어지느냐면 이 사람들이 기본이 돼서 아까 리박스쿨의 주요 인사들 이런 시민사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지난 대선에 또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지금 손효숙 대표가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선 때 자유손가락군대 댓글부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연장선상에 있는 중심 인물이 손효숙 대표가 되는 거예요.

○**증인 손효숙** 위원님, 제가 아스팔트 현장에서 9년을 있었습니다. 그 9년 동안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사람들이 다 저에게 어떤 관계가 되거나 또는 영향력이 있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때 또 만나기도 하고 한때는 또 서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름을 안다든지 하는 거는 가능하지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까지 제가 영향력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박성준 위원** 몰랐는데 영향력이 있는 걸 인정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영향력이 있다고 하니까 인정합니다.

○**박성준 위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손 대표가. 그래서 이 국회의 청문회 자리에 중심 인물로 나온 거예요.

○**증인 손효숙**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왜 리박스쿨 사태 청문회에 나오게 됐는지.

○**위원장 김영호** 아니, 경찰서 갔다 오고 국회 오셔서 담대하게 싸우겠다는 것은 잔다르크처럼 영향력을 갖고 지금 한번 싸우겠다는 건데 영향력이 있으신 거지요.

박성준 위원님 질의 마치셨지요?

○**박성준 위원** 예.

.....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서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손효숙 대표님 그러면 서 계시고요.

○**서지영 위원** 아니요, 손효숙 대표가 아닙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안 하시면 들어가시고요.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지영 위원 부총리님을 비롯하여 참 장시간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의 쟁점은 우리 놀봄교실에 과연 역사 편향적 교육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리박스쿨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교육이 일어났는지 없는지는 사실 보통 사람들이 알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서울교대도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었느냐 안 갖추었느냐 그리고 현장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여러 차례 조사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안질의 때는 한 11명 정도 관련 있는 교사들이 있었다고 했고 최근에 2차 조사까지 하신 걸 보니까 159명 정도라고 제가 보고자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9명 중에서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라는 곳에, 관련성이 있다는 곳에서 116명 중에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이 있는 해, 2024년 이후에는 3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113명의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은 없는 것이지요, 이 기관이 연관이 있었다는 거지. 그것도 24년부터 있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 보면 관련성이 있는 이 단체에서 자격증을 발부받은 시점까지 고려하면 한 45명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실 때 정확하게 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시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을 밝히는 건 중요하지만 침소봉대되거나 선전·선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으시지요? 116명 중에서 113명은 24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라는 거 맞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맞습니다.

○서지영 위원 그런 면에서 숫자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도 그때 저희가 질의했을 때, 어떤 과목 수업을 했냐 했을 때 ‘두근 두근 실험’과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 교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과목명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소를 금하지 못했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좌편향 역사교육이, 좌편향인지 우편향인지 편향적인 역사교육이 있었는지 극우세력이 준동을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머리를 막 다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했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난 과목들을 저희가 보고받은 걸 보니까, 한번 띄워 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학아 놀자’, 여기서 극우세력이 준동을 해 가지고 극우적 역사교육을 했겠습니까? ‘그림책 창작 놀이’ ‘조물학 미술공작’ ‘교육용 보드게임’,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이 정도의 과목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나 걱정하실 수밖에 없도록 청문회장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거는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

에서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학부모로부터 아니면 현장에서 그런 편향적 역사교육이 있었다는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차관님?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재까지 없습니다.

○**서지영 위원** 이 청문회를 지켜 보시는 모든 관계자분들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목명은 제가 알려 드렸고 그러한 편향적인 역사교육이나 극우세력이 학교에 침투해서 그러한 형태의 교육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제보도, 신고도 현재는 없다는 것을 이 청문회가 명확히 밝혀 드립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극우적 역사교육이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왜 극좌적 역사교육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기사 한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늘봄교실에서는 극우적 역사교육 없었다고 지금까지는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EBS 김정은 입체퍼즐 논란' '김정은 캐릭터 환영단·신청서…… 초등생 국가관 훠손 우려' '반일 구호 강요한 정치편향 교사들 징계', 징계는 사실 거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김일성 처 생가가 가고 싶은 관광지? 조회연 교육감 시절 교육자료 곳곳에 친북 색채 논란이 있었다' '간첩단 사건 연루된 전교조'. 왜 이럴 때 우리는 분노하지 않았을까요? 분노하는 국민들은 많으셨겠지요. 그때 이렇게 현안질의하고 청문회 열고 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겠습니까?

2018년 EBS 미디어가 출시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여는 지도자'……

저도 1분만 추가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보충질의 안 하실래요?

○**서지영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1분 더 드리세요.

○**서지영 위원** '세계 최연소 국가원수 김정은' 이런 거는 교육현장에 EBS 교육자료로 버젓이 출시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이 조회연 교육감 시절에 발간했던 교육자료입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게 친북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자료들이지요. 가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솔방망이 처리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현장에 일어났던 극좌적인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교육현장에 일어나지 않았던 가능성성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서 밝혀든지 조사에서 밝혀야 되고 실제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하고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던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리는 사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지영 위원님 주신 말씀은 저도 분노합니다. 다만 친북 성향의 교육을 대통령실에서

강요하고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이 김정은 찬양하는 데 동조하지 않는 사람 막 탄압하고,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함께 우리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사실 주신 말씀, 친북 성향의 교육은 당연히 뿌리 뽑아야 된다는 건 공감하는데 권력층에서 이런 것을 집단적으로 강요하고 우리 교육현장에 뿌리를 내리려는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함께 막아 내겠습니다. 되셨지요?

○서지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30초만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 가지고 논란할 건 아니지요, 똑같은 취지인데. 하시겠다고?

○서지영 위원 예. 조희연 교육감 사태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할 때.

○위원장 김영호 아니, 조희연 교육감이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증거를 가져 오시면……

○서지영 위원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총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하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 다시 파악해 볼게요, 서지영 위원님.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리박스쿨 사태가 터지기 전에 손효숙 대표가 교육부 정책자문이었다는 사실 장관님 알고 계셨습니까?

○증인 이주호 터지기 전에는 제가 성함이나 기억을 못 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몰랐습니까? 지금 장관님은 손효숙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손효숙 대표를 추천한 분은 이수정 정책자문관이시고, 그런데 이수정 교수도 손효숙과 일면식도 없고 주변의 추천받아 그 의견을 신뢰해서 그대로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추천은 내가 한 거지만 사실은 다른 교수가 또는 교육 관계자가 한 거다, 이거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지요.

그런데 장관님, 손효숙 대표는 본인이 만들거나 연관된 그 수많은 단체 중에 학부모 인사라는 명분으로 24년 6월에 교육부 정책자문이 되었고 또 하필이면 늘봄 분과에서 활약했고 몇 달 뒤인 8월 28일 본인과 딸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 그 단체 명의로 서울교대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장관님이 임명한 교육부 자문위원이라는 신분이 이 손효숙 씨의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 회피하시면 안 됩니다. 극우 성향 단체가 아무런 검증도 없이 교육부 자문위로 위촉되고 또 국가정책의 이름으로 제도권에 침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조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사과하셔야 돼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주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모르는 분인데 정책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래서 향후에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선정 과정은 좀 더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백승아 위원 굉장히 허술한 시스템이었다고 자백하신 겁니다.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손효숙 대표의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늘봄학교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

록 하라고 대통령실에서 교육부 국장에게 연락했다라는 증언이 아까 나왔습니다. 혹시 이수정 자문관 외에도 손효숙 대표 위촉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관련 인사의 추천이 있었습니까?

○**증인 이주호**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백승아 위원** 모릅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 보시면요 2022년 12월 28일 손효숙 대표가 리박스쿨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방문한 사진인데 당시에 김대남 대통령실 행정관이 직접 영접한 모습입니다. 또 그 이듬해 손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보수 교육단체 출범식에 김대남 행정관이 참석했어요. 단순한 인연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김 행정관이 자유손가락군대, 즉 자손군, 댓글부대 조직했던 손 대표와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부와 서울교대, 이수정 교수 다 본인들은 지금 리박스쿨과 무관하다 이런 회피성 면피성 발언을 계속 이어 가고 있는데요. 교육부의 이런 무책임한 인사, 부실하고 허술한 위촉 시스템, 그게 극우단체의 제도권 침투, 공교육으로의 침투를 도운 겁니다. 방조하고 방기하다 못해 도와주기까지 한 거예요.

지금까지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임명했지요, 검정교과서도 뉴라이트 검정교과서 억지로 통과시켰지요. 계속 이 뉴라이트 세력을 교육에 침투시키려는 시도가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의혹을 추가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교원단체와 딱 3건의 업무협약 맺었는데요. 맺은 곳 중의 하나가 극우 교원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 소위 말하는 대한교조입니다. 제가 교사 출신인데 대한교조 처음 들어 봅니다. 그러니까 교사를 대표할 만한 규모나 어떤 활동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장관님, 이 대한교조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동고동락하는 관계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교조는요 민족 친일사관 내세운 대안교과서 만든 그런 교원단체입니다. 대한교조 대표 조윤희 씨는 SNS 이렇게 쓴 적도 있어요. ‘5·16 쿠데타가 아니고 5·16 혁명의 날이다’ 이런 글도 썼어요. 실제로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5·16 군사정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거는 명백한 역사왜곡 정도가 아니라 역사 부정이지요.

어떻게 교육부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이런 대한교조와 업무협약을 맺은 건지 궁금하고요. 이런 협약 대상으로 정하는 기준이 뭔지, 교육부의 선정 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수많은 교원단체들이 존재하는데 왜 하필이면 규모도 작은, 잘 들어 보지 못한 대한교조와 업무협약을 맺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극우세력의 교육현장 침투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쉽게 일부러 도와준 거 아닌지 답변해 보십시오.

○**증인 이주호** 말씀하신 교원노조와의 업무협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무 부서에서 '소위 소수 교원노조들과의 소통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시다시피 교총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지만 또 소수의 조합원을 가진 교사노조들도 상당히 중요한 소통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아마 소수 노조들 3개 단체를 초청해서 차담회 형식으로 함께 모임을 하고 MOU를 체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거지 저희가 이 단체가.....

○**백승아 위원** 그리고 왜 소수 노조인 대한교조만 하고 더 커다란 교원단체들과는 안 했습니까?

○**증인 이주호** 다른 단체들하고도 계속, 잘 아시다시피 교사노조와는 또 교원.....

○**백승아 위원** 업무협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증인 이주호** 업무협약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은 안 나지만 다양한 협력 활동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 경우에는 소수 노조들 세 단체가 업무협약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부처에서.....

○**백승아 위원** 극우 성향이 아닌 소수 교원노조·교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극우 세력인 대한교조와 한 이유가 뭔지 여쭤본 거고요.

해당 업무협약 이후에 대한교조가 수행하거나 시도한 역할이 있는지 또 교육부가 함께 추진한 사업이나 행사 있었는지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주호** 예,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정복 위원** 정대화 상임위원님께 질문을 할 거고요. 뒤에서 장신호 총장은 마이크를 갖고 서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6월 11일 리박스쿨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국교위에서 6월 13일 날 이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교위 내에서 리박스쿨과 관련된 사람이 총 5명, 연취현·김주성·장신호 그다음에 전문위원 한 분, 특별위원 한 분 이렇게 총 다섯 분이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저희는 여덟 분으로.....

○**문정복 위원** 여덟 분. 더 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김태일·박소영 등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국교위원.

○**문정복 위원** 나가신 분까지 합치면 여덟 분 정도?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문정복 위원** 그래서 국교위에서 리박스쿨과 연관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당연히 국교위에서 회의를 열었겠지요.

어땠습니까? 당사자인 김주성·연취현·장신호 그분들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대체로 사실관계를 좀 부정하고 '리박스쿨은 잘 몰랐다' 그리고 본인들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 이런 형태의 답변을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김주성, 저희는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불출석했어요. 아마 손자 생일이라고 해서 미국에 가 버린 모양인데, 이분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 리박스쿨 학교장을 하셨고.

연취현 변호사는 리박스쿨의 협력 관계인 대한교조의 자문변호사인데, 혹시 연취현 변호사는 서면답변이라도 보내왔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저희가 여섯 분을 조사했는데요 국교위 사무처에서 여섯 분에게 다 사전 소명서를 받았습니다. 소명서를 받고, 그다음에 사무처에서 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심으로 질의응답하면서 확인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고 또 이 사태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묻고 국교위원으로서 적절한 처신이었는지를 묻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사무처에서 확인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서 조사권은 없지만 사무처에서 하는 것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독 국교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련되어서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손놓고 있는 것은 기관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자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 상임위원 김태준하고 저하고 두 사람하고 과장 한 분하고 사무관 두 분 해서 5명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했고요.

○**문정복 위원** 그래서 국교위의 회의 결론은 뭡니까? 비상임위원을 해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저희는 일단 사실 확인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짐작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좀 의심이 되거나 의혹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묻고 또는 서로 의견도 공유했고요. 그다음에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에 대해서 위법성 혹은 부적절함의 판단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문정복 위원** 국교위가 스스로 못 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에게는 또 국감이라는 제도가 있고, 이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국교위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저희는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감에서 다시 증인으로 재채택을 해서 결과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분만 확인해 드리겠습니까, 정대화 상임위원님? 김주성 리박스쿨 학교장은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던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우선 정치학교장이라고 보도된 것에 대해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아까 손효숙 대표는 그렇게 인정을 했는데 본인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사실은 그 얘기를 끝내면서, 그분도 학위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 질문으로 ‘지금 리박스쿨 관련을 떠나서 총장이자 정치학 박사였던 분의 발언이 이게 국교위원 발언으로는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정도는 나눴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정복 위원** 장신호 총장에게까지 질문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앓아 계시고요.

다음번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보충질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다시 추가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여당에서만 질의 신청자가 있습니다.

○**조정훈 위원** 야당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님.

○**위원장 김영호** 김민전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민전 위원님 계시군요.

그러면 처음으로 진선미 위원님, 제가 일단 질의자를 호명할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순서에 맞춰서 질의해 주세요.

진선미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 고민정 위원님, 김민전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문정복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승아 위원님 하실 거예요?

○**백승아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선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질의하기 전에 중인 손효숙 대표 앞으로 나와 계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영호** 참고로 질의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저는 아까 발견된 문건에 'NGO 단체를 20개 만들겠다', 지금 리박스쿨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인지 아니면 서로 협력단체로 이쪽 명의 빌리고 저쪽 명의 빌려서 필요할 때마다 다른 단체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 문제, 연합회 그게 비영리법인이어서 수의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강사들에게 돈을 받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 연합회 명의의 계좌로 보내 달라고 중인이 그렇게 올렸어요. 맞지요? 리박스쿨의 이름으로 강사들이, 양성할 때 강사들한테 수업료를 받았잖아요.

○**증인 손효숙** 예.

○**진선미 위원** 그게 리박스쿨 명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명의를 연합회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 연합회가 수의사업을 못 한다고 했는데 거기로 다 보내라고 하고.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카톡에도 보면 리박스쿨에서 강사를 양성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뒤늦게 생명과학교육연구회라는 이 단체가 문제가 된 건데 이것도 확인한 게 1차 때는 21년부터 25년까지 해 놓고 추가로 2차 할 때는 25년만 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거랑 숫자가 달라요. 저는 이것도 교육부에서 마치 이것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학교육연구회 권민서라는 대표가 교육부에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냅니

다. 그러면서 자기는 리박스쿨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손효숙 대표는 원래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자기가 설립한 건데 이름만 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 빌려주는 게 관계가 있는 거지요. 아무한테나 이름 빌려주는 것 아니잖아요.

손효숙 중인, 이 권민서 대표로부터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명의 빌린 겁니까? 빌린 겁니까?

○**증인 손효숙** 예, 제가 이사장으로……

○**진선미 위원** 이사장인 거지 명의를 빌린 게 아니잖아요. 맞지요?

○**증인 손효숙** 명의를 빌렸다고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사장……

○**진선미 위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권민서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한테도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어요, ‘이렇게 우리가 교육부에 보냈다’ 이렇게 알리면서.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권민서 대표라는 그 사람이 증인이 이 조합의 이사장일 때 본인이 감사였어요. 그리고 이사장의 이름으로 부정선거 개입하고 그럴 때 정치적 중립 지키지 않았다고 별도로 각서를 냈지만 그런 행위를 할 때 본인이 감사였다고요, 조합 이름으로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단체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흔선을 주는 것 자체가 이 극우 세력의 부피를 넓히고 그리고 문제가 되면 뒤로 빼고, 꼬리 자르고, 또 문제가 되면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9년 동안 해 오신 거예요?

○**증인 손효숙** 제가 9년 동안 해 왔다는 것은 아스팔트에서 9년 동안 활동을 했다는 거고요.

○**진선미 위원** 이런 단체들에 끊임없이, 이쪽의 이사장 했다가 저쪽의 감사 했다가 이사 했다가 대표 했다가 이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증인 손효숙** 필요하면 그렇게 서로 연합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협력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런데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권민서 대표는 지금 생명과학교육연구회가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랑 아무 상관이 없대요. 맞아요?

○**증인 손효숙** 실제로 아무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생명과학연구회는 저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별도의 단체고 오래전부터……

○**진선미 위원** 그러면 왜 그 대표가 조합의 감사입니까?

○**증인 손효숙** 그러니까……

○**진선미 위원** 왜 감사예요? 권민서를 왜 감사로 했어요?

○**증인 손효숙**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감사를 하거나 또는 이사를 하라는 법은 없지요. 서로 아니라 그렇게 했던 건데, 다만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생기면서 제가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적 시간적인 그런……

○**진선미 위원** 이번에 그만둘 생각이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정리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됐지요?

○진선미 위원 담대하게 다투고 계시네요.

됐습니다.

○증인 손효숙 위원장님, 제가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증인 손효숙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님이 정치학교의 저희 뮤 했다고 그랬는데 저희는 정치학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선거학교라는 것을 했었어요, 2020년에. 제가 아까 듣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강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경숙 위원 장관님,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손효숙 씨와 조윤희 씨 이런 분들이 정책자문위원회에 구성이 되었는데 함께 참여한 것이 말씀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6월 20일 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기니까 전원을 해촉하셨더라고요.

○증인 이주호 예.

○강경숙 위원 그런데 위촉 과정도 좀 불투명한데 해촉도 이렇게 아무 기준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질문거리인데요.

일단 제가 쪽 한번 따라가서 볼 테니까 같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리박스콜 청문회에서 한 가지 분명한 성과를 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부의 허술한 법령이나 제도를 분명하게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간 자격증 말씀드리니까 제도 자체에 대한 허점이 좀 컸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어서요 그 부분 되게 잘 응대하신 거라고 보는데 정책자문위원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부.....

제가 자료제출한 것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면)

여기 문구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교육정책자문위원의 위촉 관련해서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 있느냐고 하니까 교육부 공무원의 답변이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대요.

그다음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런 것이 좀 문제인 것이에요. 너무나 안일한 태도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는 자문관이 정책자문위원에 척척 추천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검증 조차도 없이 아까 손효숙 씨나 조윤희 씨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은 교육부의 자문위원이라고 다른 데 가서 얼마나 많은 명함들을 뿌리겠습니까? 교육부라는 데가 굉장히 권한이 있는,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 본인의 자격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다닐 텐데.

정책자문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제각각이더라고요. 행안부는 180명 교육부는 150명, 아까 장관님께서는 120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150명 맞습니다. 해수부는 100명 문체부 70명 산업부 30명이에요.

교육부가 이렇게 정책자문위원회를 관리를 할 거면 숫자도 좀 대폭 줄이시고 제대로, 아까도 장관님께서 그런 분들에 대해 잘 활용하거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최소한 검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개선 대책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활용 방안,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정책자문위원회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개선 방안…… 기조실장님 안 계시나요? 장관님이 답변해 보시지요.

**○증인 이주호** 이제 신임 장관께서 오시면 아마도 다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실 텐데요. 말씀하신 그런 사안들이 잘 반영돼서 엄정하게 제도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권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경숙 위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공무원답지 않은 이런 답변은 좀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세심한 거고 어디까지 가야 세심한 것입니까? 안일한 태도 좀 다시 고치세요.

**○증인 이주호** 말씀하신 그 취지 반영해서 잘 준비하도록 저도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율호 위원** 리박스쿨은 공교육 울타리 밖의 홈스쿨링, 대안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왜곡과 극우 이념 교육을 시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리박스쿨 교재를 읽고 감상평을 하는 학생들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감상평 한번 보시지요.

소리가 안 나네요. 넘어가시지요.

다음 PPT 보시지요, 그냥.

(영상자료를 보면)

보시는 화면은 리박스쿨이 실제 운영했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운영 목적을 보시면 5학년부터 시작되는 비뚤어진, 여기 ‘비뚤어진’이 중요합니다. 학교 한국사교육에 잘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교육과정이 비뚤어졌다고 규정하며 그 대안으로 왜곡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박스쿨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장관님, 올바른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하시는 건 맞을 거고 그런데 지금 검정교과서 역사교과서가 아닌 역사왜곡과 사상 교육을 위한 교재가 공교육 제도권 밖에서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는 거 심각하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 이주호** 저희가 공교육에 대한 거는 교육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니까 강조를 해야 되지만 또 공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

라고 생각합니다.

○정을호 위원 장관님,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미인가 교육시설,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대상으로 교육자료나 교재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주호 예, 대안교육 기관이나 또 대안학교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 공교육과 관련돼 있는 영역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대안교육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안교육 기관의 경우에 등록의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 과정들은 제한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대로 사실 이 연령대 우리 아이들에게는 똑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편향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무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권고 형태라도 저희가 하는 노력을,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기본적으로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선정해 주듯이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폭을 넓혀 주는 거를 인증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증인 이주호 대안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하는 데 아마 한계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걸 잘 반영해서 정부가 꼼꼼하게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을호 위원 그래서 최소한 미인가 교육시설과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대상으로 해서 역사 교재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이주호 예, 의원실과 협의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을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고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민정 위원 손효숙 씨 나와 주시고 PPT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손효숙 대표님,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서 네이버 감시하면 50만 원, 민노총 감시하면 월 100만 원, 전교조 감시하면 30만 원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셔서 주시겠다는 계획서입니다.

왜 감시를 하셨나요?

○증인 손효숙 위낙 오래된 일이어서 사실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고민정 위원 그러면 저게 정상적인 장학회의 활동이라고 보시나요?

○증인 손효숙 장학회라는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저희들이 부르기……

○고민정 위원 아스팔트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그 아스팔트 청년들이 네이버 감시하고 민노총 감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시지요?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지요?

○증인 손효숙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는 안 하는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고민정 위원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군요.

○**증인 손효숙** 왜냐하면 이런 감시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정 위원** 손효숙 대표님.

○**문정복 위원** 사과받아야 돼요.

잠깐만!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 멈춰 주시고요.

○**문정복 위원** 잠시만 멈추고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안 하냐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기가 하니까 다 하는 줄 알아요!

○**증인 손효숙** 아니요. 저도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몰라서.

○**문정복 위원** 민주당은 안 하냐고요? 여기 했다는 증거 있잖아요, 손효숙은!

○**증인 손효숙** 그건 제가 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문정복 위원** 사과하세요!

○**증인 손효숙** 예,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발언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질의 이어 주세요.

○**고민정 위원** 국정원 프락치 들어 보셨죠? 프락치가 뭔지 아세요?

○**증인 손효숙** 국정원……

○**고민정 위원** 프락치 활동이 뭔지 아세요?

○**증인 손효숙** 국정원 프락치 활동 저는 모릅니다.

○**고민정 위원** 국정원이 활동자금을 주고 시민단체나 주요 인물들 사찰시켜서 정보 보고하도록 하는 게 프락치 활동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이 문건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었던 건 상상하고도 싶지 않은, 뭐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손효숙 대표가 너무 당당하게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런 프락치 활동을 지원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주 잘못이라는 생각을 손효숙 대표는 전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놀립습니다.

최정미 리박스쿨 교육국장하고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증인 손효숙** 2017년?

○**고민정 위원** 2017년부터?

○**증인 손효숙** 예.

○**고민정 위원** 그리고 계속 모든 문건에 같이 등장하시더라고요.

○**증인 손효숙** 예, 오랫동안 같이……

○**고민정 위원** 주로 그분이 회계 쪽 일 하셨지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면 뭐 하셨나요?

○**증인 손효숙** 교육 쪽에서 일을 했지요.

○**고민정 위원** 교육 쪽에서 뭘……

○**증인 손효숙** 청소년들 실제적인 강의 이런 것보다도……

○**고민정 위원** 전반적인 걸 다 담당하셨지요, 최정미 씨가?

○**증인 손효숙** 실제적인……

○**고민정 위원** 저도 문건을 통해서 이 이름을 알게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분께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관변단체의 회계 담당자셨고요. 국정원 연관 단체로 알려진 곳의 간부로도 활동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증인 손효숙** 예, 저희도 확인했…

○**고민정 위원** 제가 앞서서 프락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증인 손효숙** 위원님, 저도 그 기사는 봤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리고 네이버를 감시하거나 민노총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 없으신 걸 보니까 그거는 상시적으로 해 오셨던 것 같고.

그런데 국정원과 관련된 누군가가, 지금 최정미 씨라는 분이 계셔요. 물론 저는 그냥 상상의 영역으로 끝나길 바라지만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닌가, 혹은 국정원과 어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보를 주고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듭니다.

○**증인 손효숙** 전혀 저는 모르는 사실이고 관계도 없습니다.

○**고민정 위원** 그러나 전교조, 네이버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호** 고민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민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전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교대와 같은 늘봄 프로그램을 한 대학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지금 기관으로는 대학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선정을 했고요. 지금 대학이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저희가 RISE에 연계시켜 가지고 대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그러면 15개의 기관, 대학을 포함해서 15개의 기관에서 여기 각 기관과 또 협약을 맺어서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지금 하고 있는 창의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늘봄 프로그램 교육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냐고 그러면 다른 곳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우수한 기관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들끼리 모아 가지고 밖에서는 공급하지 못하는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좋은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잘못 이용하는 어른들의 잘못인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이렇게 해야지 통상적으로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늘봄 프로그램의 양질화 이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는 그거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은 면밀하게 보완하도록 하되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전 위원** 늘봄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부

도 또 저희도 교육계도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서울교대의 사례를 보면서 소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이름하에 또 전국적인 강사 공급 능력이라는 이름하에 사교육 업체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 하는 걱정을 사실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교육 업체 전반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울교대와 함께했던 사교육 업체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에 있어서 특정 정당과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북한보다 정당성이 낫다’ 이런 말을 한 기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소위 이런 것을 극좌라고 얘기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극좌라는 래테르를 붙일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역사관이 아닌 분들이 주도했던 것도 또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소위 리박과 연관된 분들뿐만 아니라 그 사십몇 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또 특정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사교육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소위 극우 교육의 침투라는 이름하에 이런 청문회를 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교육 업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의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들의 활동도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또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김민전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진보든 보수든 너무 편향적인 폭력적인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 여야 위원님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뿐리 뽑아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자료 있으면 확보해 주시고요. 그런 편향적인 역사교육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들면 여야 국회가 힘을 합쳐서 그런 역사적인 일을 함께 해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손효숙 대표 잠깐 나와 주실래요?

손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그림을 그렸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지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요.

손 대표님, 윤석열 정권의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는 이념적 전선을 만든 거예요, 극우적 전선을. 그게 뭐냐 하면 리박스쿨을 통한 교육이고 또 하나는 대한교조 위원회든가 김주성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극우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면서 교육적 이념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데올로기 갈라치기 하는 집단이 하나 된 거고.

또 하나는 손효숙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 주는 태극기 집회의 주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제가 앞서 얘기하는 김상진 이희범 그다음에 김대남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왔던 거고.

이 사람들과 다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지요?

○**증인 손효숙** 저는 9년 전부터 아스팔트에서 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 역할들을 쭉 해 오면서 그것이 윤석열 정권을 뒷받침해 주는 세력이었고 윤석열 정권 탄핵 국면에서 내란 국면에서 이들이 윤석열을 지켜 주는 전위부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그것이 전광훈 목사와 양메리 이런 사람들 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고리에서도 손효숙 대표는 있는 거고요.

그 가운데 지난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고 대선 과정에 뭐가 드러났느냐면, 손효숙과 그들의 정치 세력들이 다 드러난 계기가 뭐였느냐면 댓글 부대였던 거예요. 자손군,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군대.

이 이름은 누가 지은 겁니까? 손효숙 대표가 지었나요?

○**증인 손효숙** 예, 제가 지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 댓글부대 역할을 한 거예요?

○**증인 손효숙** 아닙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자유손가락군대라면서요?

○**증인 손효숙** 그 군대 자체는 없습니다. 저희가 SNS 활동하는 애국자들을 지칭을 하는 겁니다.

○**박성준 위원** 아니, 이름을 지어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SNS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명칭을 손효숙 대표가 지은 것 아닙니까, 자손군을?

○**증인 손효숙** 예, 그 교육을 받았다는지 또는 그렇게 해서 국회에 입법 반대 또는 입법 그런 시스템 활동을 한다든지 네이버에서 댓글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SNS를 시작하신 애국자라고 보고 자손군이라고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한 거지, 실체적으로는 자손군이 없고 각 단체별로 그래서 우리도 자손군을 좀 길러 봤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게 오래됐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손 대표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씨줄 날 줄로 만나게 되는 건데 리박스쿨 통해서 이념교육기관이 되고 그들과 함께 지금 얘기하는 우남네트워크의 김인성은 백골단을 만들고, 또 태극기집회 했던 주요 세력들과 연결이 되고, 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사이버상에서 하나의 또 다른 조직을 만들고, 그것이 자손군이 되고 여기에 손 대표가 주요 역할을 하는 주요 인사인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댓글부대와 관련된 경찰 조사를 받겠는데 지금 손 대표의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극우세력을 표상하는 거고 윤석열의 내란과 관련된 옹호 집단의 주요 중심 세력으로서 손효숙 대표가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댓글부대까지 역할을 하는, 지금 얘기하는 자유손가락군대라고 하는 것은 손 대표가 이름을 지은 것 아니겠어요? 그 역할을 만드는 상징적인 힘을 손 대표가 한 겁니다.

○**증인 손효숙** 그런데 그 일을 제가 그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제가 다 한 걸까요?

○**백승아 위원** 아까 리박스쿨 문서 맞다면서요, 활동요령 문서? 맞다면서요, 리박스쿨 것?

○**증인 손효숙** 예, 리박스쿨에서 하는 일은……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손 대표가 그 역할에, 그건 이제 앞으로 경찰 조사, 수사에서 나오겠지만 지금 손 대표가 이러한 역할의 중요 인물이 됐고 그러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늘봄학교까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스스로 지금 오늘 입증을 다 하시는 거예요.

○**증인 손효숙**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불법 댓글 조작단을 운영하고 늘봄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댓글 모집을 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프레임을 쓰고 제가 그렇게 언론의, 언론 테러였습니다. 맹폭격을 받았던 그 시절, 그 시점 5월 31일, 6월 1일 그때 보니까 대통령께서, 당시 후보께서 2400명의 강사를 양성을 해서 현장에 내보냈는데 공부는 안 가르치고 댓글 다는 것만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막 방송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위원장 김영호** 말씀 다 하신 거지요?

○**증인 손효숙**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거기서 무슨 연결이 돼 있고 한다는 것이 저는 그게 과연 저 하나의, 저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김영호** 그만하시지요.

○**박성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산실이 된 거예요, 산실. 손 대표가 그걸 인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모든 집단의, 리박스쿨, 이 집회, 댓글 여기에 손 대표가 산실을 만든 겁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증인 손효숙**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또 레테르를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애국 현장에서 저는, 저라는 사람은 정말 원오브 템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정리해 주시지요.

○**증인 손효숙** 수많은 애국 집회들도 있고 애국자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는데……

.....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박성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백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승아 위원** 손효숙 대표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자손군 활동요령문서 거기에 리박스쿨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좌측 상단 리박스쿨 자유존가락군대. 본인이 리박스쿨 문서 맞다면서요?

○**증인 손효숙** 예, 그렇지만 자손……

○**백승아 위원** 그런데 뭐 자손군이 없다는 말을 하세요?

○**증인 손효숙** 그렇지만 자손군……

○**백승아 위원**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증인 손효숙** 자손군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게 실체예요. 실제 활동했잖아요.

○**증인 손효숙** 아니, 그 활동을했던 사람들이……

○**백승아 위원** 그만하시지요. 시간 아깝습니다.

○**증인 손효숙** 여러 가지 일들을……

○**백승아 위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리박스쿨 관련해서 국교위 위원들이 여섯 분이나 관련이 돼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교위가 리박스쿨 연루 의혹 위원들에 대한 서면·면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면)

어제 조사 결과 살펴보니까 연루된 여섯 분 모두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고 계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할 예정이십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우선 국가교육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이런 단체와 개인적인 행동이라도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상임위원 두 분들이 조사를 하고 국회에도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시냐고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니요, 국회에도 제출을 했다고요.

○**백승아 위원** 제출을 하고 그 뒤로는 조치는 없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래서 이제 청문회를 지금 거치고 또 그분들의 것이 더 명료하게 지금 수사도 받고 있는 그런……

○**백승아 위원** 아니 국교위 차원에서, 여론 추이나 경찰 조사 결과 보는 것 말고 국교위 차원에서 먼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조치는 이제 정확하게 뭐가 드러나면 저희는 정치적 중립성을……

○**백승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치는 하지 않고 있는 거네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아직은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백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정대화 위원님,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미국에 있는 손자 생일잔치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하신 김주성 비상임위원의 면담 조사 직접 주재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백승아 위원** 그때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으로 정치학교장 직책을 맡은 김주성 위원이 저희 의원실 서면질의에 답변한 것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리박스쿨의 연구단이 구성되었는지, 그때 정치학교장이라는 직책이 거론되었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직책을 수행한 기억도 없다’. 다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으셔요.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면담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 안 난다고 하셨지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런데 저희 의원실이 입수한 리박스쿨 조직도 보시면요 리박스쿨 교육비전을 실현하는 키맨 그리고 정치학교장으로 베젓이 김주성 위원의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아까 손효숙 대표도 정치학교장 이런 것 없다고 했는데 조직도에는 나와요. 말씀하신 선거학교장도 있고 정치학교장도 있습니다. 다들 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또 김주성 위원이 면담 조사에서 국교위 위원이 된 후에는 리박스쿨 간 적 없다고 진술했지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2023년 8월 25일에 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9월 9일에 리박스쿨 가서 찍은 사진이 여기에 베젓이 나와 있습니다.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 거짓말하면 처벌 가능합니까?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논의 좀 해 보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그러면 조사받은 다른 위원님들도 거짓말했을 수도 있겠네요?

○**국가교육위원회상임위원 정대화** 이게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부에서 위원이 위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 여부를 가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아 위원** 그런데 이 김주성 위원은 단순한 자연인이 아니시고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고 또 우리나라 역사 연구의 중추 기관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이사장입니다.

이배용 위원장님, 이런 극우적 정치 주장을 하는 사람을 국교위 위원에 계속 두실 겁니까? 즉각 해임조치 하시겠습니까?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사실확인을 하고 검토를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검토해서 해임조치 하시겠어요?

○**국가교육위원장 이배용** 그것은 그 단계에서 그런 것이 저희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승아 위원** 항상 뚜렷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국교위가 지금 무용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없애 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있는 데는 위원장 책임이 큽니다.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호** 백승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문정복 간사님, 오늘 마지막 질의가 되나요?

○**문정복 위원** 예.

장신호 총장님 마이크 가지고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증인 장신호** 예, 위원님.

○**문정복 위원** 장신호 총장님, 한국늘봄연합회와 서울교대가 맺은 MOU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어서 확인하지 못했고 사전 검증 정책이 없어서 본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맞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위원님.

○**문정복 위원** 맞습니다. 지금 장신호 총장께서 한국늘봄연합회를 고발하셨지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무슨 죄목으로 고발하셨나요?

○**증인 장신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고요. 사기죄 이렇게 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사기죄?

○**증인 장신호** 예.

○**문정복 위원** 그러면 김은총 씨만 대상이 되나요?

○**증인 장신호** 아닙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요?

○증인 장신호 손효숙 씨도 같이 함께 고발했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혹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총장님 쪽에?

○증인 장신호 없습니다.

○문정복 위원 그러면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빠진 거고요. 그러면 손효숙 씨와 김은총 씨만 지금 고발 대상이 된 거고요?

○증인 장신호 예, 맞습니다.

○문정복 위원 지금 국민들께서는 부모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녀가 범죄자가 되는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모가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효숙 씨는 여기 와서 변명만 하지 말고 좀 진지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강사카드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금 장신호 총장은 본인은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강사카드를 보면 너무 허술한 거예요. 김은총 씨에 대한 경력을 보면요 경력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재직했다 이런 것 자체도 없고요. 이 위에 있는 늘봄 대표는 가짜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것 빼놓고 나머지 세 번째는 검색조차도 되지 않는 이런 경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말 허술한 강사카드를 가지고 여기를 협력단체로 MOU를 맺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서울교대가 정말 잘못한 거다 그리고 장신호 총장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늘봄에 이런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오게 만든 그 책임을 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울교대 총장에서 물러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신호 제가 좀 말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김영호 예.

○증인 장신호 위원님, 제가 오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서울교대는 그간에 늘봄학교 사업을 하면서 외부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공공성과 교육적 타당성에 기반해서 공정하게 운영해 왔습니다.

○문정복 위원 잠시만요.

○증인 장신호 저는 총장으로서.....

○위원장 김영호 잠시만요.

○문정복 위원 총장님, 잠시만요.

뭐가 공정하게 운영해요? 지금 장신호 총장님이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렇지 저희가 수사 대상으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총장님께 전화가 갔는지 연락이 갔는지 이런 것 조사하면 총장님 떳떳하다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공정했다라는 말씀 마시고요. 잘못됐다라면 과오를 인정하시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는 게, 책임을 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답변하십시오.

○증인 장신호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 잘 운영하라는 총장으로서의 지시와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실무 집행이나 어떤 부당한 일이 없었음은 제가 총장으로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동의하는 바는 그동안 대학에서 검증하기 어렵거나 하지 못했던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도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멀리 정부하고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서 강사 검증이나 업체 검증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정복 위원 장 총장님 때문에 늘봄의 교육 시스템이 정말 국민적인 불신을 얻게 됐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영호 문정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시고 의사진행발언 있으시지요?

○문정복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문정복 위원 아까 조정훈 간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실제로 이수정 정책자문관의 위증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고발을 하자고 했는데 조정훈 간사하고 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반성하거나 사실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여부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고발 시점은 저희가 16일 날 인청을 할 때 전체회의에서 고발을 의뢰하는 것을 그렇게 간사 간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합의를 했습니까?

○문정복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이수정 교수님, 지금 내용은 들으셨을 텐데요. 어떻게,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증인 이수정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호 예.

○증인 이수정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MOU를 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은 MOU를 아까 늘봄연합회라는 것은, 제가 그때 행복교육봉사단 MOU 요청 건을 듣고 부서에 얘기할 때는 늘봄교육연합회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 명칭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복교육봉사단이라는 것을 전해받은 것은 고 천세영 교수님 제 학계의 선배인데 그분으로부터 받아서 민원을 미리 넣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지 만약에 제가 말을 했다라는 것은, 리박스쿨이나 늘봄연합회하고 MOU를 해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지시와 같은 것이어서 ‘지시가 아니다. 저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기억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자문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지시를 하거나 결정을 해 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자

문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민원을 받았을 때 전달을 하기도 하고 연락을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시를 했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지시했다는……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

○증인 이수정 지시했다는 기억도 없고 제가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그 기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말씀 잘 주셨고요. 그것은 우리 간사님들이 잘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명은 다 하신 거고.

○증인 이수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서지영 위원님.

○서지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조정훈 간사께서 16일 날 고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아니고 16일 인사청문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검토하기로 했다?

○서지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이쪽 간사하고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아직 조정훈 간사가 안 계셔서……

○문정복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은 고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저희가 고발하겠다라고 하면 그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서지영 위원 제가 아는 것과 조금 달라서……

○위원장 김영호 그것은 여기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 제가 조정훈 간사님 만나서 확인할게요. 확인해서, 오늘 이런 것이 다 영상으로 남고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원님들끼리 판단해서 고발 여부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효숙 대표님 거기서 그냥 마이크 잡고요. 한 가지만, 아까 답변을 안 주셔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2024년도 한국과학창의재단 공모사업 도전에 실패해서 탄식하던 중 창의재단 늘봄팀 관계자가 ‘향후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조언했다’라고 입장문을 내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증인 손효숙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요. 상담팀에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증인 손효숙 상담팀에 있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상담팀의 실무자입니까, 윗선입니까?

○증인 손효숙 실무자인지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화를……

○위원장 김영호 처음 본 분이에요?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창의재단의 처음 본 분이에요, 알고 지낸 분이에요?

○증인 손효숙 처음 보는 분이고 또 전화로 여러 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분이 향후에 전국 교대를 중심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전 정보를 손 대표님한테 어떻게 알려 주지요?

○증인 손효숙 그분이 아마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런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의문이었고요.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리박스쿨……

○증인 장신호 저기 잠깐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제 말씀을 미처 드릴, 여쭤보지 않으셔서 제가 한 1분 정도만……

○위원장 김영호 몇 분이요?

○증인 장신호 약 1분 정도만 잠깐 말씀드려도……

시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말씀하세요.

○증인 장신호 감사합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잠깐 이 자료를 좀 보여 드리면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주셔서 제가 국립대 총장으로서 또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충분히 그 책임을 공감하고요. 하지만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제가 총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울교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리박스쿨, 세상에 이런 이름이 있는지조차 저희 학교는 모르고 선생님들도 몰랐습니다. 서울교대는 그리고 우리 교육계는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늘 봄사업에 온몸을 바쳐서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국립대학으로서 초등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밤낮 없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알지도 못했던 외부 단체 때문에 서울교대는 하지 않아도 될 해명까지 감당해야 될 상황이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 장신호 총장은 국립대학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켰고요 어떠한 사적인 개입이나 부당한 영향력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증인 장신호 우리 학교교육이 피해받는 지금의 현실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학교 선생님, 애쓰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대학들에게, 열심히 한 분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정리하시지요.

○증인 장신호 끝까지 책임 있는 태도로 교육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앉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하여튼 리박 사태 청문회가 장시간 이루어졌는데 사실 핵심 증인이신 손효숙 증인과 이수정 증인이 오늘 단 한 번도 국민들께 사과하지 않은 점,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국민들과 함께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국민에게 사과를 단 한마디도 안 한다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앞으로 제가 계속 좀 지켜보겠고요.

오늘 리박스쿨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됐던 여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도 많습니다. 리박스쿨은 단순히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가 아니었다는 것 이지요.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의 유기적인 연대가 밝혀졌고 교육부 내 고위 공무원인 장관정책자문관이 손효숙 대표 단체의 MOU 체결에 영향력을 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를 대통령실로 여러 차례 초대했고 오랜 기간 꾸준히 지원했습니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이 손효숙 대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당국은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의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서 리박스쿨 관련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해서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죄를 묻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늘봄학교에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데요.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여야 위원들이 늘봄학교가 그래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리박스쿨 이후 극우단체의 어떤 사상교육화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잘 챙겨 보고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질의 다 끝났으니까요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문수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정을호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청문회에 나와 주신.....

○증인 이수정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호 잠깐만요 앉아 계세요.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청문회에 나와 주신 증인 여러분,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교육부 등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마지막이 되실 수 있는 이주호 장관님도 참,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런 식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아마 장관님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고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헤어지는 마당에 또 장관님과의 좋은 추억도 일부 있으니 그런 추억을 갖고 장관님과 앞으로도 또 뵙 날이 있겠지요.

○증인 이주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증인 이수정 蘋게 한마디만……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신데? 국회가 막 마음대로 나와서 하고 싶은 말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하시려고?

○증인 이수정 위원장님께서 사과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드린 말씀이 저는 사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문위원 추천 의견을 드릴 때 좀 더 살펴보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고맙습니다,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결국 오늘은 손효숙 대표님만 사과 안 하시고 담대한 싸움을 잘 펼쳐 주셨습니다.

○증인 손효숙 저도 한말씀……

○위원장 김영호 하여튼 평가하겠습니다. 담대한 싸움, 아마 지지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증인 손효숙 저도 사과……

○위원장 김영호 사과하시겠어요? 그러면 나와서 사과하시고요.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진짜.

손효숙 대표님 말씀하세요.

○증인 손효숙 정말 바쁘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리박스콜 청문회까지 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훼손하도록 또 그런 우려를 하도록 많은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관계자, 교육의 모든 종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말씀 중간인데 ‘훼손하도록’ ‘우려되도록’ 그것은 말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손 대표님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신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증인 손효숙 예.

○위원장 김영호 앞으로 계속 그 활동을 하실 겁니까?

답변 말씀 주세요.

○증인 손효숙 저는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반도 다 잃어버렸고 의지도 잃어버렸고요.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

○위원장 김영호 제 기억에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손효숙 대표님한테 차분하게 질문하신 것 있잖아요, 전두환에 대한 평가. 그래서 그때는 공과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주셨는데 하여튼 저희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주 극진보나 극우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고 지적인 것이고요. 당연히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에 대해서는 양당도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하시려면 좀 건전성 있는 보수 활동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도 전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손효숙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들 하셨고요.

그러면 아쉽지만 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다 그러면, 특히 이주호 장관님께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그런 점 좀 잘 감안해 주시고 또

뵙겠습니다, 장관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산회)

---

### ○출석 위원(16인)

강경숙 고민정 김대식 김문수 김민전 김영호 김용태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백승아 서지영 정성국 정을호 조정훈 진선미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윤상열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교육부

부총리겸장관 이주호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책임교육정책실장전담직무대리 소은주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 예혜란

감사관 김도완

정책기획관 배동인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최창익

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교원학부모지원관 장미란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배용

상임위원 김태준

상임위원 정대화

사무처장 최수진

#### 서울교육대학교

늘봄교육지원센터장 임미인

### ○출석 증인

이주호(교육부장관)

이수정(단국대학교 교수(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손효숙(리박스쿨 대표)